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SEP 9 1982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920 1982년 9월 6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Monday, September 6, 1982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우대금리 15.5%

80년12월이후최저, 계속 하락 전망

시중은행이 가장 신용이 좋은 고객에 주는 대출금리 프라임·레이트(Prime Rate)가 1980년 12월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15.5%로 떨어졌다.

2일 캐나다중앙은행(Bank of Canada)의 금리가 지난주의 13.95%에서 80년11월이래 최하 수준인 13.74%로 떨어지자 커머스은행(CIBC), 토론토 도미니언은행등 주요시중은행들은 3일 프라임·레이트를 16%에서 15.5%로 0.5% 내렸다.

중앙은행금리가 떨어지자 몬트리얼은행(Bank of Montreal)도 일반대부금리를 종전의 19.25%에서 18.5%로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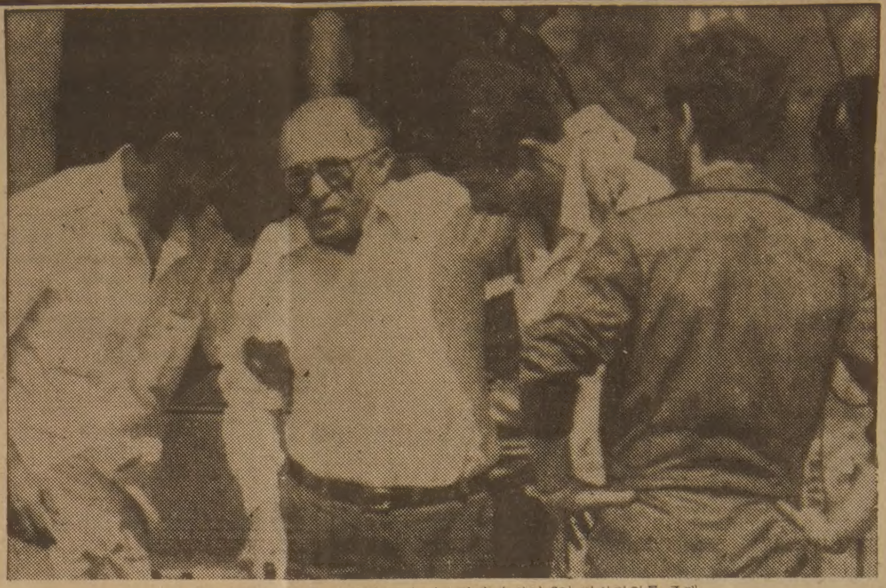
캐나다의 프라임·레이트는 지난6월 18.25%를 기록한 이래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경제학자들의 견해로는 프라임·레이트가 앞으로도 계속 하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커머스은행의 벤·게스틴 부사장은 "캐나다의 은행금리가 아직도 계속 하락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말하고 캐나다 금리가 미국금리보다 하락속도가 느린 이유는 캐나다의 인프레이션율이 아직 미국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현재 미국의 프라임·레이트는 13.5%이다. 지난 7월의 현재 미국의 연평균 인프레이율은 7.3%였고, 캐나다의 연평균 인프레이율은 10.8%였다.

한편 2일의 캐나다달러와 미화와의 환율은 1일보다 뛰어 1달러당 81.02센트로 됐다.

매주 목요일에 고시되는 캐나다중앙은행 금리는 3개월만기 연방정부재정증권(Treasury Bill)에 대한 평균투자수익율에 0.25%를 가산한 숫자이다.



◆휴양지에서 휴가를 보내던 베긴 이스라엘 수상이 2일 비상각의를 주재하기 위해 급거 귀경, 부축을 받으며 헬리콥터를 내리고 있다.

레이건 평화안 정면거부

이스라엘, 비상각의 소집

레이건미국대통령이 새로운 중동평화안을 제안하자 2일 긴급 비상각의를 소집한 이스라엘은 이 제안이 「캠프·데이비드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 전원 만장일치로 이안을 거부했다.

레이건대통령은 1일 34국에 방영된 TV연설을 통해 항구적인 중동평화를 모색키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재 이스라엘의 점령지인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자치 정부를 수립할 것을 제안했었다.

이스라엘 내각은 이날 비상각의가 끝난후 발표된 성명을 통해 레이건의 제안은 야샤·아라파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장으로 하여금 웨스트·뱅크를 접수, 쏘련과 아랍의 지원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맹공격을 감행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자했다.

이 성명은 이어 웨스트·뱅크가 일단 요르단에 접수된다 하더라도 후세인왕이 웨스트·뱅크를 PLO에 넘겨줄 경우 이를 막을 방안이 없으며, "이렇게해서 팔레스타인 국가가 형성되게 되면 쏘련과 손을 잡고 최신무기로 무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 이스라엘은 점령지구에 이스라엘 거주자들을 강화하자는 강경파의 주장을 내세우지는 않았다.

미국방안에 대한 이스라엘 내각의 정면 반대로 미·이스라엘관계의 충돌이 예상되나, 미국정부측에서는 이스라엘의 반대에 "놀라거나 실망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라리·스피크스 백악관 부공보 비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스라엘과 아랍 양측을 다 만족시킬 방안을 마련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토의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베긴이스라엘수상과 당시 이집트대통령인 사다트씨와 함께 「캠프·데이비드협정」을 작성한 카터전미국대통령은 레이건대통령의 새로운 중동평화안은 이 협정에 "완전 부합"된다고 말했다.

해외진출 장려지시

(서울3일=연합)최근 아프리카 4개국과 캐나다를 순방하고 귀국한 전두환대통령은 3일 각료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상호협력해서 5개국 순방에 따른 후속 조처를 조속히 마련토록 지시했다.

전대통령은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각료들에게 이들 국가들과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전대통령은 이외에도 내각은 이들 5개국에 보다 많은 한국의 근로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총리실은 4개 대통령 순방 아프리카국가와 캐나다및 알라스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근로자들을 돌볼 전담반을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알 림▶

9월6일(월)은 「노동절」(Labour Day) 법정공휴일로 휴무합니다. 따라서 7일자(화)는 수요일자와 함께 2일분 편집되며, 매주 수요판에 나가던 「주간한국」은 금주에 한해 월요판에 실습니다.

증거제시·증언청취 끝나

11월18일 청문회 최종 단계

전대통령 암살음모재판

전대통령 암살음모재판 예비청문회가 증거물제시, 증인심문등을 끝내고 오는 11월18일 최종 변론, 논고에 들어간다.

지난 30일부터 2일까지 속개된 청문회는 2일 상오 한국계 증인과 은행관계자의 증언을 청취했으나, 그 내용은 보도금지 됐다.

이번 청문회에는 찰스·야노버와 마이클·제틀이 출두했다. 북한으로 도망간 것으로 알려진 최중화는 아직 북한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야노버와 제틀에 대한 대통령암살음모 혐의는 검찰측에서 스스로 취하를 결정, 11월의 최종청문회에서는 사기혐의만 갖고 계속 추궁한다.

최중화에 대한 암살음모 혐의는 계속 남아 있다.

이 사건의 또 하나의 공범 플러거맨은 아직 수배중이다.

플러거맨이나, 야노버는 국제조직범죄단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랜드 데모사태 악화

서부 루빈시 완전 고립

(와르샤와)두명의 민간인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등 최근 가장 치열한 데모를 보인 폴랜드 서부의 신흥광산도시 루빈시는 2일 현재 완전 고립됐다.

서방 여행자들은 2일부터 루빈시의 개솔린 판매및 승용차 사용이 금지되고, 전화및 텔렉스 교신이 차단됐으며, 경찰이 주요도로에 차단막을 쌓았다고 전했다.

밤8시이후 통행도 금지된 루빈시 주민들은 소련진영 유일의 자유노조 솔리대리티 창설 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시의 3개소에서 꽃과 양초를 들고 모였다가, 물대포 세례를 받고 흩어졌다.

폴랜드 전국 13개 도시에서 5만여명이 연사흘째 항의시위를 벌여 3명이 숨지고 4천여명이 체포됐다.

폴랜드는 작년12월13일 이후 계엄령이 선포됐고, 솔리대리티지도자 레흐·바웬사는 구금됐다.

핵폭탄 제조여부조사

캔두원자로 보유국

한국이 캐나다정부당국으로 부터 도입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캔두(Candu)원자로를 둘러싸고 UN산하기구인 국제핵에너지기구(IAEA)가 이 원자로를 보유한 각국의 핵폭탄 제조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캔두(Candu)원자로를 가진 파키스탄은 3년내에 이슬람계국가로는 처음으로 핵폭탄을 터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도는 가운데 밝혀졌다.

한편 한국은 국제핵 에너지기구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 협정에 조인하지 않은 나라는 파키스탄외에 이스라엘, 남아프리카와 인도이다.

인도는 74년 이미 핵폭탄 실험을 했다.

캐나다석탄 수입

한국, 합작투자 확대

(서울3일=연합)동력자원부는 최근 전두환대통령이 순방한 아프리카 4개국및 캐나다와 광물자원 탐사를 위한 합작투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력자원부소식통은 3일 이와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우선은 운반비가 많이 들지 않는 우래니움에서 시작, 차차 상품가치가 있는 다른 여타 광물로 확대해서 합작투자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캐나다와는 석탄수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 소식통은 밝혔다.

◁금주의 행사▷

(9월6일~12일)

◆6일(월) 상오11시-수퍼10골프대회
곳: Glen Eagle golf장
주최: 토론토한인골프협회

◆9일(목) 하오6시30분-가을학기 개학 노스욕한글학교
곳: Maxome 중고교(70 Maxom Ave.)

◆10일(금) 하오5시-모국체전참가 대표자회의
대한체육회 캐나다지부

◆10일(금) 하오7시 「영화의 밤」
대종상 명화 「사랑의 뿌리」

◆11일(토) 하오7시 영화 「사랑의 원자탄」
주최: 숭공문화협회
곳: Winston School
(2239 Lawrence E.)

◆11일(토) 상오11시-토론토한인성당(중부) 야외미사
곳: 라운트리·밀즈공원 (이슬링턴×휜치)
연락처: 863-0415(천주교회)

◆11일(토) 상오9시
칼빈신학교 개강
곳: 252 Bloor St. W.
연락처: 233-2266, 244-2301

◆11일(토) 12(일) 하오8시
김익스초청 음악선교집회
곳: 한인장로교회
(Davenport Rd. & OakWood. Tor)

◆12일(일) 하오5시
장로장립·권사취임 예배
토론토 한인중앙교회
(502 Bathurst St×College)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캐나다속의 참된
한국인의 목소리
-토론토 한국일보-

오늘의 예금금리

기 간	한인신용조합 일반정기예금	한인신용조합 오뚜기정기예금	일반은행
30일	13%		12.5%
90일	13.5%		13 %
180일	13.5%	13.5%	13 %
365일	13.5%	13.5%	13 %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533-9287~8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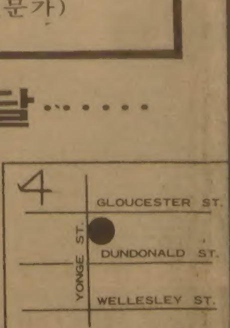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대리점
순금화상품
귀국선물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한국인 경영의 최대규모의 꽃집
YONGE FLOWER SHOP

◎ 각종 PLANTS, 어랜지먼트,
CUT FLOWER, SOIL 취급.
◎ 결혼·장례·생일·파티등 화환전문
(일류 FLOWER 전문가)
토론토 전지역 배달……
589 YONGE ST.
(ONE BLOCK NORTH OF WELLESLEY ST.)
☎: 960-6265 MR. 김



—추석맞이—
럭키국립공원 단체관광 (2차 모집)
■일 시 : 1982년 9월14일~9월21일(7박8일)
■방문일정 : 제스파 공원 2박 • 벤프공원 2박
캠룹스 1박 • 벤쿠버/빅토리아시 2박
■요 금 : $650
■포함된사항 : ●왕복항공료 ●숙박비(4인1조) ●관광버스 ●안내자
■신청마감 : 1982년 8월25일까지 ●예약금 $100첨부
■기 타 : ♤취소할 경우 예약금은 반환치 않음.
♤요금은 예고없이 변동될 경우도 있음.
♤한국인 안내자가 출발서부터 귀환까지 책임안내함.
신세계 NEW WORLD TRAVEL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 • 2156
R) 492-7525 김 창 범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서울왕복 1,074달러

새 노선 나이아가라서 출발

토론토-서울왕복 항공요금이 1,074달러인 새 항공노선이 생긴다.

토론토의 한국인, 중국인 고객을 노리고 오는17일부터 운항되는 캐나다교통부의 덤핑규제때문에 미국쪽 나이아가라 공항에서 출발, 김포공항에 도착한다.

CP, KAL등의 현행 요금보다 200달러 이상이 싼 이 항공노선은 타이페이(대만), 홍콩까지 같은 요금으로 운행하며, 매주 금요일 아침 8시55분에 떠나, 매주 수요일에 서울서 돌아온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점을 둔 중국계 미국항공사, 포·시스·에어라인(Four Seas Air line)이 마련한 이 노선은 방콕, 싱가폴, 마닐라까지 연장하는 허가를 미국 항공국서 받았다.

나이아가라를 떠난 비행기는 시카고와 앵커리지를 거친다. 항공료는 토론토-나이아가라간의 버스요금을 포함한 것이며, 화물운송 규정이나, 비행기내의 서비스는 다른 노선과 똑같다.

돌아오는 편은 임의로 정할 수 있고, 2주전에 예약은 받는다. 150달러의 예약금을 여행을 취소해도 되돌려 받지 못한다.

이 항공노선의 항공표 판매권을 가진 오·씨·투어스(OC Tours)의 토론토지점(393 Dundas W, 596-6755) 지배인 제니스·장여사는 "이 노선의 항공표는 한국계 여행사를 비롯, 어느 여행사에서든지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행시간은 토론토에서 나이아가라까지 1시간40분간의 버스시간을 포함, 다른 노선 항공시간과 별 차이가 없다.

약200인승의 DC-8 4발제트기가 취항하며, 중간에 비행기를 갈아 타는 불편이 없다.

지금까지는 홍콩, 싱가폴, 타이페이등지로 가는 조그만 전세비행기가 1,000달러 내외의 항공료로 운행돼 왔으며, 서울로 가는 이런종류의 비행기회사는 이제껏 없었다.

한편 이 항공사는 미국내 국내운항권도 획득, 본격적으로 미국군소항공사들과 덤핑경쟁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포·시스·에어라인의 사장 「스텐리·로」씨는 캘리포니아에서의 학생시절 고학, 홍콩까지 다녀올 항공요금이 없자, 비행기를 전세내고 좌석을 전부 팔아 그돈으로 여행하고 온 사람. 그후 그는 홍콩까지의 전세 비행을 매주 계속, 수 많은 중국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자신은 백만장자가 되었다.

서울행

토론토 다운타운 매주 금요일 —(버스편 약1시간반)→ 미국 나이아가라 아침 8시55분 이륙

↓

김포도착 토요일 하오5시15분 ← 시카고, 앵커리지 경유

토론토행

김포이륙 매주 수요일 하오1시30분 → 시카고, 앵커리지 경유

↓

토론토 다운타운 하오6시경 도착 ← 나이아가라도착 수요일 하오4시40분

스위스銀行 비밀口座

〈워싱턴 〉 스위스정부는 미국의 주식회사 간부들이 다른 주주들을 속이려고 스위스 비밀은행 내부정보를 이용하는것을 수사하기 위해 미국정부가 비밀은행구좌를 조사할수 있도록 합의했다.

양국정부는 비밀은행구좌에 있는 모든 미국의 불법자산들을 미국의 관계당국이 조사할수 있게 허용할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인정했다.

◆지난 7월12일 결혼식을 두달 앞둔 21회 생일날 시체로 발견된 게버트양(왼쪽)과 약혼녀의 살해를 슬퍼하는 보이드씨(오른쪽 뒤)와 게비트의 친한 친구 테리양. 이들은 2일 권총으로 함께 자살한 시체로 발견됐다.

약혼자·여자친구 자살

결혼앞두고 피살된 게버트양

결혼예정일 두달전인 지난7월12일 찔려 숨진 시체로 발견된 클로디아·게버트양의 약혼자와 그녀의 여자친구가 함께 자살했다.

게버트양의 친한 여자친구 테리·구코브(21)양은 2일 밤 게버트양의 약혼자 찰스·보이드(35)씨 부모의 자택에서 보이드씨를 라이플로 쏘아 죽이고 자신도 자살했다.

각기 유서를 남기고 죽은 두사람은 게이트의 죽음 이후 심한 우울증세를 보여 정신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게버트양은 21회 생일날 자택에서 여러군데 칼에 찔린 나체시체로 발견됐으며, 성적 공격을 받은 흔적이 있었다. 그녀의 시체를 맨처음 발견한 사람은 전 남자친구였다.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경찰은 살인범에 대한 단서를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81년10월 토론토·선지의 선·샤인·걸이었던 테리양은 작년 온타리오주 윈비에서 비밀리에 스티브·존스씨와 결혼신고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녀의 부모는 결혼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메트로 경찰 살인사건 담당 수사관 에드·스튜아트 형사는 "두사람이 게버트양의 죽음에 크게 충격을 받았으며, 이들의 살인·자살은 미리 준비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이 굳이 동반 자살을 했어야 할 이유는 수사 관계에서 밝혀질것으로 보인다.

보이드씨는 킹스턴·로드와 모닝·사이드이의 부모 집에서 살았고 보이드씨 부모는 유럽 여행중 변을 당했다. 테리양의 부모가 이틀간 딸의 행방이 묘연하자 살인 수사 전담반에 신고를 함으로써 밝혀진 이 동반자살의 동기가 삼각 관계에 의한 것이었다는 추측도 있다.

컴퓨터 기술자인 찰스·보이드씨는 약혼녀의 죽음이후 자살얘기를 곧잘 해왔고, 2주전 진정제로 음독자살을 기도했었다고 이웃주민들이 말했다.

토론토 한국일보는 우수한 이민문화의 창조에 이바지하는 신문입니다.

교민동정

◆윤중태 (치과의사)=작년8월 토론토서 뱅쿠버로 이주, 개업했왔는데, 2일 정든 토론토로 돌아왔다.

앞으로 다시 개업할 예정이다. 현재 연락번호는 699-8815.

◆유승민 (본사 편집2부장)·김명희 (본사 사진인쇄 담당)=4일 박희민 목사 주례로 혼인, 신혼여행차 출국, 한국·하와이·LA·홍콩등지를 돌아 이달 하순 귀임한다.

김명희양은 결혼과 함께 사직, 풀타임 와이프로 전업한다.

행복한 부부의 코뮤니케이션 ③

직업과 가정을 분리시킬 것

—열가지 실천요령

김 보 경(심리학 박사)

때로 남녀를 우열의 관계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음양의 본 원리에서 어긋난다. 하나가 크고 다른 하나가 작으면 이미 평형내지 조화는 깨어진다. 우리가 오랫동안 고수해왔던 남존여비의 사상은 정치적인 현상이었을 뿐 그것이 동양의 근본적인 사상은 아니었다.

짝의 원리는 또한 남녀가 똑같다라는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니다. 두개의 기능이 똑 같으면 짝이 되지 않는다. 오늘날 남녀평등의 사상이 잘못 해석되어 여자가 꼭 남자처럼 되고자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라 보겠다. 왼쪽손 오른쪽 손이 평등하지만 그렇다고 두 손이 경쟁할 필요가 없다. 그 하는 일이 적절히 분담되어 있으므로 해서 두 손이 경쟁하는 것 보다 훨씬 능률성을 이루게 한다. 오른쪽 손이 글을 쓰면 왼쪽 손은 종이를 잡아준다. 오른쪽 손이 다치면 왼쪽 손이 오른쪽 손을 대신할 수 있지만, 구태여 오른쪽 손이 건강한데 왼쪽 손이 펜을 잡으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모든 것이 동등하면 서로 서로 그 기능을 나눔으로써 조화있고 통합되고 또 더 능률적인 일을 해 가는 것이다.

가정에 있어서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이다.

부부간의 코뮤니케이션이란 상대를 서로 알게 하는 과정이다 서로 알면 서로 장단을 맞출수 있다. 서로 알면 오해가 없고, 의심이 없게 된다. 그런데 우리 부부는 서로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아내에게 물어보면 남편이 자기를 이해 못 해 준다고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 이민생활은 너무나 바빠서 어쩌면 부부간에 말할 시간도 없는지 모른다. 아마 이민가정에 파탄이 더 많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보다 부부가 서로를 이해할 만한 시간적 또는 심리적 여유가 없어서 인지도 모르겠다. 생활에서 오는 격심한 스트레스는 쉽게 격분하게 만들고, 또 제일 "만만한 것"은 부부지간이기 때문에 다른 원인에서 온 노여움도 부부사이에서 화풀이 하기가 쉽다. 이민이라는 급격한 생활환경의 차이에서 개인적으로 더 감정적 사고적 격변이 심해짐으로 부부간에 더 밀접한 코뮤니케이션이 필요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실 더욱 대화를 줄도록 만들고, 걷잡을 수 없는 오해와 갈등이 더 큰 틈을 만드는 것이다. 어쩌면 좋을까?

첫째, 부부는 상대를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 상대에 대하여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대화가 지속될 수 있다.

둘째, 상대에 대하여 긍정적 말을 해 볼수 있도록 연습할 것. "당신 참 고생해요", "당신 참 대견스러워", "당신 참 예뻐"등 좀 쑥스럽게 생각되는 말을 계속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자꾸 생길것은 틀림없다.

셋째, 말할때 미리 노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명료하게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또 상대방의 의견을 참을성 있게 듣는 기술을 습득할 것.

넷째, 될수 있는대로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은 분리시킬것. 부부가 항상 피로한 일을 함께 불어하면 서로 언짢은 경험을 하게 하는 기회가 그만치 많아 진다.

다섯째, 부부가 때로 은밀하고 로맨틱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할것.

여섯째, 돈을 버는것과 동시에 돈을 가정을 위해 즐겁게 쓰는 방법을 배울 것.

일곱째, 휴식하는 법을 배울것.

여덟째, 부부간에 금실이 좋은 이웃과 사귀면서 그 비결을 배울것.

아홉째, 남편이나 아내이기 이전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란 것을 상호 항상 인식할것.

열번째, 폭력으로 가정을 다스리려는 생각은 절대적으로 버릴것. 부부간에 폭발적인 분노를 경험하게 될 때는 뭔가 크게 잘못될 상태임을 알고 전문가의 도움을 얻을것.

세상사가 전부 그러한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노력하고 노력없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노력하고 배우는 것이 성공에의 핵심이다.

의원 동성애추문 법무성, 수사종결

〈워싱턴 〉 법무성은 국회의원들이 의회사환들과 동성애관계를 맺었다는 혐의소문에 대한 수사를 공식적으로 끝마쳤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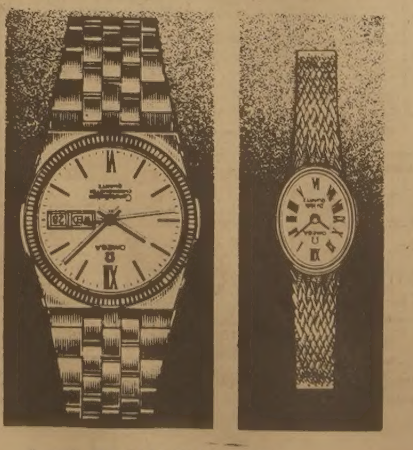
그러나 코케인 사용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한다고 법무성은 전했다.

정정

9월4일자 본지 2면의 메로사태기사 제목과 본문중 "50만명 경찰과 충돌"중 「50만명」은 「5만명」의 잘못이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OMEGA

오메가시계 남·녀용



$ 175 부터(보증서 첨부)

가을맞이 대매출

세일기간 : 9월10일부터 19일까지
오전10시~오후9시까지

※세무, 가죽제품,
섬유원피스,
브라우스, 바지등.

50% OFF

물세무(남·녀용)
코트·투피스

LONDON FOG
(런던·포그)
남·녀코트

여러분의 단골 백화점
미도파로 오세요.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TORONTO ‹B› 536-1692 ‹R› 245-3539

<독자문예>

9월이 오면

서 윤 정(토론토·웨스티힐)

9월이다.

한때 갑자기 추워지고, 두꺼운 옷을 찾게 된다. 이렇게 추위를 빨리 느껴지니까 기분마저 아상하다. 더위는 만족하기 전에 없어져 버리고, 가을이 있을까 생각을 채 하기도 전에 겨울이 올 것 같다. 춥다. 잠옷에 스웨터까지 걸치고, 담요에 또 하나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도 춥다. 양말까지 신었다.

잠이 안온다. 커피를 많이 마셔서 일까? 아냐,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친다. 비가 오는구나. "쏴!"하고 내리는 빗소리가 아파트창문에서 회색빛으로 물들여 보인다.

왜 요새는 가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나? 비가 오면은 왠지 쓸쓸해진다.

FM에선 아드리느를 위한 발라드가 울리는데, 전화소리가 "따르릉"거린다. 친구였다. 잠이 안오고, 우울해서 전화했단다. 이내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생각에 잠겼다.

난 모든 것을 현실에 의존한다. 현재 노력하고, 현재 변화된 삶이길 원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계속 전진하고픈 마음이다.

모든 여건이 쉽게 와닿진 않는다. 가을이 오면, 또 겨울이 오면 더욱 더 외로움이 느껴지게 되나부다. 춥고 몸이 도사려지고, 모든 것이 힘차게 느껴지진 않는다. 골치 아픈 것이 많다. 살아간다는 것이 왠지 힘이 든다.

아--. 그림이 미치도록 그리고 싶다. 이젤을 세우고, 펜슬로 스케치 하고, 그리고 물감을 먹이고, 잠깐 잠깐 멀리서 바라다 보며 감상하고, 체크하고, 그러면서 완성되는 희열을 맛보고 싶다. 한데, 못하고 있는 내가 안스럽다. 지금은 할 수가 없다. 여건이 안돼있는 내가 현재로선 미술도구 사기도 힘들고, 여유도 없고, 아! 미치겠구나.

한국의 내방엔 항상 수많은 포스터칼라와 많은 물감과 붓, 이젤이 구석에 놓여있고, 많은 도화지가 있었는데…. 많은 책이 쌓여 있었고, 지하실 큰방에는 나와 동생을 위한 스튜디오까지 있었다. 동생은 공예를 한다.

정말 하루에 한번은 붓들고 그림을 그리곤 했다. 글도 제법 많이 쓰고, 글이라야 낙서에 불과하지만, 많은 글을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반복해 왔지. 그리고 항상 음악을 들었었지. 그것이 좋았다.

음악은 날 조건없이 행복하게 만들었다. 가벼운 경음악과 수준있는 팝송이 좋았다. 영화음악과 세미크래식도 무척 좋아했던것 같애?

어떨땐 녹음해둔 카셋트를 듣고 하루종일 내방에서 죽치고, 침대에 앉아 들을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러다 커피마시러 식당으로 가서 쿠키와 맛있게 커피를 마시곤 했다.

우리집은 식당이라고 할 정도로 부엌이 깨끗하고 크다. 한국의 우리집이지만 여기 와서 느끼고 보니 무척 좋은집이었다.

난 집착성이 강하다. 집착은 나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다. 여기와서 공부를 하고 산다는 것이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의욕가지고 될 것 같으나, 전혀 그렇지가 못한 것을 실감한다. 공부는 유학으로 와야 온 정열을 기울여서 할 수 있고, 산다는 것은 정에 메마른 인간의 악근성을 외롭게, 정말 쓸쓸하게 느끼는 삶의 치닫는 피로움이다. 그러면서도 모든 생활을 만끽한다는 인간이 만들어낸 레져시설,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그것이 맘에 꼭 들어 살아가나 보다.

우선 직장만 있으면 아파트에 차 한대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니까….

왠지 자꾸 한국에 가고 싶다. 엄마와 동생들이 보고 싶고, 친구가 그립다. 이런 생각들에 부대끼면서 오늘을 산다.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62>

金聖鍾 작

어떤殺人 ⑨

"青酸한방울이면 그놈을 즉사시킬수가…"

한쪽 벽이 온통 진열장으로 차있었다. 진열장안에는 각종 실험용 약품들이 들어있었다. 플래시를켜들고 조심스럽게 진열장안을 들여다보았다. 「Hydrocyanic acid」라고 쓰인 병에 시선이 멎었다. 청산(靑酸)이다. 일명 시안화수소·청산가리, 즉 시안화칼륨에 황산을 가하여 증류하면 무색의 액체가 생긴다. 그것이 청산이다. 병에 담겨있는 무색의 액체를 노려본다. 치사량은 0.06그램, 한방울이면 즉사시킬수있다. 아무리 무쇠같은 놈이라 할지라도 수초내에 숨통을 끊어놓을 수가 있다.

진열장문은 잠겨있었다. 아무나 손댈수없게 언제나 잠가두지만 여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가않다. 잠가두는것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 회사가 기울어지기 시작하자 모든 일들이 형식적으로만 처리되고 있었다.

먼저 고무장갑을 손에 끼웠다. 다음에 핀셋을 집어들어 열쇠구멍속에 꽂고 오른쪽으로 비틀었다. 조금 무리한 감이 있었지만 제대로 돌아가주었다. 문을 열고 약병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조그만 빈병에 청산을 조금 따랐다. 손이 떨리는 바람에 몹시 애를 먹었다. 약병을 제자리에 넣어둔 다음 이번에는 다른 것을 찾는다.

청산은 치명적이다. 그것은 단숨에 상대를 쓰러뜨린다. 그것은 살인이다. 살인자. 내가 살인자가 된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 뿐이다. 살인하지 않고 놈을 최면 상태에 빠뜨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나 최면효과는 일시적일 뿐이다. 깨어나면 그만이다. 가만있자. 최면상태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문제는 놈을 어디다 가둬두느냐 하는거다. 아뭏든 가져보는 거다.

「Chloral hydrate」를 집어들었다. 이것은 중추신경을 억제하고 안전마취작용이 있다. 효과가 장시간 지속되는만면 투약후 30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난다. 도로 집어넣고 대신 「Pentrichloral」이라고 적혀있는 병을 꺼냈다. 큰 병안에 무색의 덩어리가 여러개 들어있다. 사용할 때는 가루로 만들어야한다. 투약후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4시간이상 지속된다. 6백밀리그램이면 상대를 잠재울 수 있다. 마개를 열고 덩어리를 하나 꺼냈다. 약병을 제자리에 올려놓고 문을 닫았다. 핀셋으로 문을 잠근 다음 작업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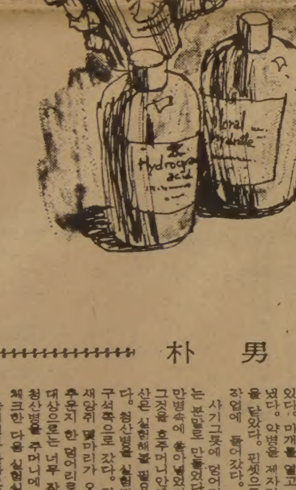
사기그릇에 덩어리를 집어넣고 가는 분말로 만들었다. 가루약을 조그만병속에 쏟아넣었다. 마개를 닫고, 그것을 호주머니안에 집어넣었다. 청산은 실험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았다. 청산병을 실험대 위에 올려놓고 구석쪽으로 갔다. 작은 철망 안에서 새앙쥐 몇마리가 오물오물 떨고있다. 실험대상으로는 너무 작다고 생각한다. 살찌운지 한 덩어리로 뭉쳐있다. 청산병을 주머니에 넣고 이상유무를 체크한 다음 실험실을 나왔다.

숙직실로 돌아오니 김부근은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다.

옷을 벗고 그옆에 누웠지만 쉬이 잠이 올리가 없었다.

엎드려서 담배를 피웠다. 식은 밤이 아직도 꾼적거리고 있었다.

그는 더없이 선량한 사내였다. 자기자신도 그렇게 생각해왔었다. 그런데 어도 남이 보기에는 그랬다. 오늘 밤일은 아무래도 이해할수 없는 변화였다. 그는 자신의 돌연한 변화에 어리둥절하고 있었다.



朴 男 그림

생활영어

② 민병철 담당 (시카고 한인 영어연구원장)

IT'S A PIECE OF CAKE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쉽다」를 영어로 옮겨 보라고 했더니 It's just like eating a Korean cake on the bed, 라고 말한 학생이 기억난다.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쉽다」와 같은 표현으로서 「식은 죽 먹기」라는 말도 있으나 다같이 「몹시 쉽다」는 뜻이다.

위의 학생이 농담으로 하였는지 아니면 본인의 영어 실력을 십분 발휘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어의 표현은 직역하려 들면 틀리기 십상이다. 표현 자체를 그대로 외우는 수 밖에는 별도리가 없다.

한번은 잘아는 미국인 친구를 한국 식당에 초대해서 Do you know how to use chopsticks? (젓가락을 사용할줄 아세요?)라고 물어 보았더니, It's a piece of cake,라고 하면서 젓가락질을 능숙하게 해내는 것을 보았다. 이와 같이 미국인들은 「누워서 떡 먹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It's a piece of cake, 혹은 줄여서 A piece of cake,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 조각의 케이크를 먹는 것처럼 쉽다」는 의미로 사용하는것이다.

Is the English test hard?(영어 시험이 어려운 가요?)라고 묻는 사람에게 No, it's a piece of cake.(아뇨, 아주 쉬워요)라고 하면 될 것이고, I don't know how to type.(타이프 칠 줄 모릅니다)라는 상대에게 It's a piece of cake to learn. (아주 쉽게 배울수 있읍니다). 이같이 대답하면 될것이다.

「아주 쉽다」는 말의 다른 표현으로는 It's a cinch, 나 It's a snap, 혹은 It's very easy.가있고 「너무 쉬워서 어린애도 해낼수있다」에 꼭들어 맞는 영어표현으로는 It's so simple a child could do it.이 있다.

A: What kind of Korean food would you like to have?
B: I'd like to have bulgogi.
A: Fine, By the way, do you know how to use chopsticks?
B: It's a piece of cake
A: How in the world did you learn to use them?
B: I was stationed in Korea for five years, you know.

A:어떤 한국 음식을 드시겠어요?
B:불고기를 들겠읍니다.
A:좋아요. 그런데, 젓가락질을 할 줄 아세요?
B:누워서 떡 먹기죠.
A:도대체 젓가락질은 어떻게 배우셨어요?
B:한국에서 5년동안 복무했었죠.

* By the way:그런데(대화를 바꿀때 사용)
in the world:도대체.
station:~에 주둔시키다.

Ex. I was stationed in Korea for three years while I was in the army. 나는 육군에 복무하는동안 3년간 한국에 주둔했었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 243-9544
1391 WESTON RD

三國志 (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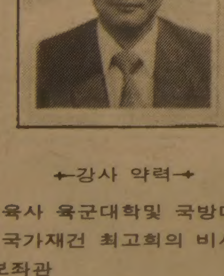
글·高羽榮·그림

한국비디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전 사형수!

이인수 집사의 산증언



←강사 약력→

- ㅇ전 육사 육군대학및 국방대학원 교수
- ㅇ전 국가재건 최고회의 비서실장및 특별보좌관
- ㅇ현 새문안교회 집사
- ㅇ평신도 전도단장
- ㅇ새마을 연수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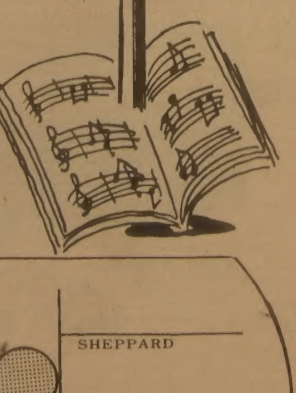
※출감후 5년간에 600회 집회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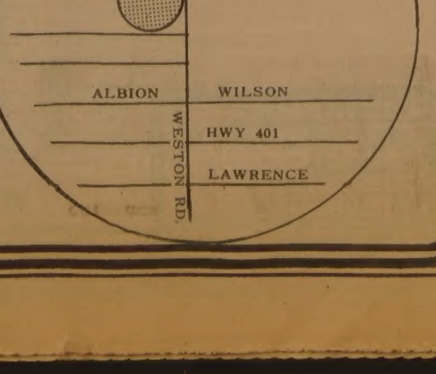
일 시: 1982년 9월 9일~12일 (목, 금, 토, 주일) 4일간

집사수련회: 9월11일(토) 오전10시

장 소: 반 석 교 회
2840 Weston Rd., Weston, Ont.

연락처: 746-5010





반석교회 당회장 장세주 목사

全대통령、5國巡訪마치고 歸國

韓·阿협력 새章 열렸다

太平洋시대 成就 확신

全斗煥대통령은 17일간 아프리카 4개국과 캐나다巡訪일정을마치고 1일하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金浚成부총리등 공식수행원 18명과함께 특별기편으로 귀국했다。全대통령은 지난달16일 서울을떠나 케냐、나이지리아、가봉、세네갈등 아프리카 4개국과 캐나다를 공식방문、각국元首및 정부首腦들과 6차례에걸친 頂上회담을갖고 정치 외교 경제 문화등 각분야에걸친 협력증진방안을 폭넓게 협의、우호관계를 공고히했다。

全대통령은 특히 아프리카 4개국정상들에게 南南協力 체제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경제개발경험과 아프리카국가들의 資源을 결합시켜 공동의 번영을 꾀할 것을 제의했으며 아프리카4개국원수들로부터 지지를 받음으로써 韓·阿협력시대의 새로운章을 열었다。

全대통령은 또 캐나다방문에서는 자신이 제의한 太平洋정상회담의 실현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양국의 血盟관계를 재확인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金浦공항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歸國人事를 통해『이번 5개국巡訪을통해 이제 우리자신이 새로운 世界的요청과 潮流에 순응하여 그主役세력의 일원이 되어야 할것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최대의大陸과 최대의 大洋을잇는 地政學的인위치로 인하여 우리가 이같은 시대적進運의 主役중의 주역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할 역사적 召命을 갖게 된것을 확인했다』면서『본인의 이번 아프리카및 캐나다방문은 이러한 점에서 볼때 역사와 세계가 우리에게 부여한 이 거대한 과업을 행동으로 옮기는 참으로 뜻깊은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아프리카와 우리나라는 被植民의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땅의 넓음과 좁음、자원의 많음과 적음에서부터 산업의 振興相、기술의 확보도에 이르기까지 서로다른점도또한 많이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全대통령은 또『아프리카는 우리를 필요로하고있으며 우리또한 아프리카를 필요로하고있다』고전제、『우리가 아프리카의 부름에 응하는것은 아프리카를 위해서도、그리고 우리자신을 위해서도매우 바람직하다』고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캐나다 방문을 통해 양국이 既存의 우호를 더욱 가속화시키기로 다짐한것은 매우뜻있는 일』이라면서『太平洋의 동쪽과 서쪽에 각기 위치한 우리양국이 域內의 평화와 번영을위해 힘을합쳐 노력한다면 위대한 태평양시대는 반드시성취될것임을 캐나다 방문을통해 더욱 확신할수있었다』고 말했다。

"「세계跳躍」의 첫걸음"

◇아프리카·캐나다 巡訪을 마치고 귀국한 全斗煥대통령내외가 트랩에서 出迎인사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全대통령 歸國성명 要旨

"위대한 國民만이 위대한 祖國건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본인은 오늘 17일간에 걸쳐 아프리카 네나라와 캐나다에 대한 공식방문을 마치고 이제 막 돌아왔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류문명의 무대는 좁은 대륙에서 넓은 대륙으로、그리고 좁은 바다에서 넓은 바다로 이행되어 왔으며、이제 드디어 대륙으로서는 지구최대의 아시아와 아프리카가、그리고 대양으로서는 태평양이 인간의지의 새로운 도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진운속에서 아시아·太平洋지역의 일원에 위치한 우리 조국이 지니는 시대적 책무도 막중해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지향하는 목표는 원대하며 우리가 가야할길은 멀고도 험난한 長征입니다。

그러나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이며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의 옛말이 있듯이 우리의 첫걸음이 성공적이었음에 비추어 長征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것이란것을 본인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국민 여러분!

사실 아프리카는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문자그대로 미지의 대륙이었으며 너무도 모르는 것이 많은 잊혀진 대륙이었읍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번 방문을 통하여 아프리카가 태고의 신비를 지닌 장엄한 대자연과 끝없이 광막한 옥토가 뻗쳐있는 대평원、그리고 깊이를 알수 없는 무진장한 자원의 보고를 지니고 있는 무서운 잠재력을 지닌 대륙이라는 것을 비로소 확인하였으며 충격을 느낄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지니고 돌아왔읍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프리카를 알지 않으면 세계를 안다고 할수 없음을 본인은 이번 방문을 마치고 분명히 단언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이와아울러 이번순방은 또한 아프리카에게 우리를 알리는 좋은기회가되었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프리카를 잘 몰랐듯이 아프리카 또한 우리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각국의 지도층일부를 제외하고는「코리안」가 지도의 어느쪽에 위치하고 있는지、그리고 남북의 분단상황이 어떠하며 대한민국의 평화통일노력이 어떠한지를 거의모르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도 우리를 알기 시작했읍니다。우리와의 진지한 대화를 통하여、그리고 연일 전지면을 뒤덮을 정도로 대서특필되는 현지언론의 보도를 통하여、그들은 우리를 분명히 알게 되었고、우리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었으며、바야흐로 아프리카에 점차 한국붐이 일어나는 계기가 조성되어가게된 것입니다。

서로를 너무나도 몰랐던우리는 이제 서로를 너무나도 잘알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것은、서로 알고나서 보니까 서로는 한편이될수있는 사이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과 우리는 다함께 이민족의 통치아래서 被식민의 고난을 당한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기때문에、따라서 이번 순방은 被압박과 굴욕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자립과 번영을 이룩해야겠다는、그리고 서로가 굳게 단결하고 힘을 결집시켜 나아가야겠다는 공통의 필요성을 서로가 절실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本人이「다카르 회견」을 통하여 개발도상국가들끼리 힘을 조직화할 필요성을 지적、강조하고 南南협력、즉 개발도상국간 협력의 신기원을 이룩하기위해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것을 밝혔읍니다。

본인은 우리가 이와같은다짐을 실천에 옮기는데 있어 아프리카와 우리와의 협력관계를 앞으로 이상적으로 전개시키는 모범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1982년9월1일

대통령 全斗煥

阿洲에 건설市場확보

金副總理회견 韓·加합작 3國 진출합의

【오타와=尹國炳특파원】金浚成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31일 全斗煥대통령의 아프리카 4國및 캐나다방문에 따른 경제적성과에 언급、『순방각국들과 상호이익증진을 위한 경제협력가능성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하고 한국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아프리카 제국의 경제개발노력을 성실히 지원하면서 우리의 상품과 기술수출를 도모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을 공식수행한 金부총리는 이날아침 귀국길에 앞서 청와대출입기자들과의 회견을 통해 이번 순방에서 특히 아프리카방문의 경제적의의가 컸다고 전제、『각국 共히 한국의 개발경험傳受를 위한 기술협력을 우리가 기대한는것 이상으로 절실히원하고 있고 또 우리가 도울수 있는 분야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하고『이것은 우리의 성공적인경제개발경험이 제3세계外交에 있어서 커다란 무기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金부총리는 이들 나라와의 경제가능분야로△농업생산및 농가소득증진△水資源개발분야△輕공업분야△건설을 포함한 社會간접시설 부문등을 들고 이와함께 기술및 人力개발지원과 이와 관련된 정책입안을 할수있는 중간관리층의 훈련이 적극적으로 시도될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계획의 주요사업을 한국의 企業이 담당해줄 것을 이번 巡訪國측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해 왔다』고밝히고 그예로 나이지리아의경우 철도、차량、도로건설、發電所 건설사업등과、가봉의경우 自國의 횡단철도건설、오웬 島港공사등을 들었다。

그는 이러한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는것은 우리쪽에서볼때 초기단계에있는 우리重工業제품의 판로를 개척함과아울러 새로운 건설시장의 확보를 의미하고 巡訪國측으로서는 自國의주요사업을 경제적이고 능률적으로 건설하겠다는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풀이했다。

그는 특히 봉고가봉대통령이 우리건설업계의 진출촉진을위해 관계법령및 경제체제를정비할 의사까지 분명히한 것을포함하여 각국 지도자들이 우리와의협력증진에 적극적인 의욕을보였다고전했다。

金부총리는『이러한 대형프로젝트에의 참여이외에 韓國의 기업가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中小企業型투자도 상호이익증진을 위한 효과적수단이 될수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가까운 시일내에 우리의 中小企業家들로 구성된 투자조사단을 아프리카4국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金부총리는 중소기업진출의 방향에 언급、『우선 간단한 조립공장이나 제조공장、예를 들어 전자제품·비누공장·자동차공장의 진출이 바람직하다』면서『이 경우 현지 인력을 韓國에 데려와 훈련을 시키거나 현지공장에서 훈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부총리는 캐나다 방문결과에대해『韓國과 캐나다가 연합체를 만들어 공동 진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民正、10億모금키로 獨立기념관 建立費

民正黨은 1일상오 중앙집행위를 열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獨立기념관건립募金운동에 적극참여키로 결의하고 전국당원을 대상으로 10억원을 모금키로했다。

民正黨은 중앙당사무처가구체적모금계획과 방법을 마련하는대로 모금운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失踪된美軍 면담 北傀側、회답회피

北傀는 지난28일새벽 실종된 주한미군소속 조셉·화이트일병과의 직접면담을 요청한 유엔군측 제의에 대해 회답을 회피한채 화이트일병이 北에 정치적 망명을 요청해왔다고만 주장했다。

이에따라 유엔군측은 이날하오『화이트 일병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기 위해』화이트일병과 면담하고싶다는 요청을 北傀측에 다시제의했다。

民正 財産등록 시작

民正黨은 1일부터 黨소속국회의원을비롯、전국구예비후보、중앙당局長및 市道사무국장등 1백89명을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시작했다。

오는2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등록기간동안 등록의무자는 본인과 배우자및 直系尊卑屬소유의 토지와건물등 부동산과 地上權、傳貰權、鑛業權、漁業權및 無體재산권을 중앙당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한다。

·등록대상재산에는▲실질상으로 他人소유이나 본인과배우자및 직계존비속명의로되어있는부동산▲他人명의로되어있으나 실질상 본인과배우자및 직계존비속 소유의부동산▲共有物의 소유持分까지 포함되며 이때에는반드시 사유서를첨부해야한다。

한편 黨사무총장은 등록사항을 접수한후 이를심사할권한과함께 필요할경우에는등록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書面질의를 할수있도록 되어있으며 등록기간을 연장할수도있다。

"是正공약 履行"

日、한국·中共 이해얻기로

【東京=聯合】일본정부는 31일하오『中共의 정부견해거부에 이어 한국정부가 또다시 교과서검정내용의 조기시정을 요구해온것과 관련、외무·文部省을 중심으로 회의를열고▲정부견해를 밝힌조치는 확실히 이해하며▲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의 결론을 조속히 얻도록 노력하고▲심의회를 통해 대처하는것이 記述수정실현에 가장 빠른 방법이란점을 韓·中양국정부에 외교경로를통해 전달、이해를 구하기로 했다。

일본외무성은 특히 崔東鎭외무부亞洲局長에 의한 한국정부의 요구는 日정부견해를 받아들인 한국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는것이라 하더라도 그배경에는 교과서문제에 관련한 한국의 강력한 국민적불만이 크게 작용한것으로보고 일본정부로선 한국의「日정부견해원칙 수락」과「중국의 수락거부」를 서로 분리하지않고 똑같은 원칙하에서 대처방안을 강구해나간다는 기본입장을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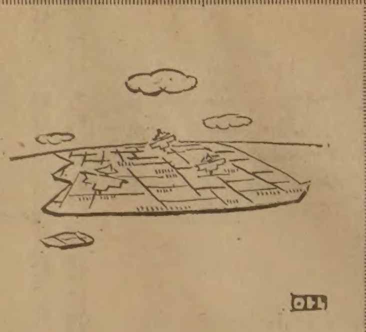
独立紀念館건립誠金 접수

大韓商運(株) 대표 權寧鮮씨 百萬원

COSA 리베르만(株) 서도 百萬원

▲大韓商運(株)대표이사 權寧鮮씨=1백만원
▲서울 江南區 盤浦洞 산13의5 高七文·朴小任씨=10만원
▲全北裡里市昌仁洞2街1의26호 鄭在奎씨=5천원
▲龍山區二村1洞301의16 고전영씨=5만원
▲COSA리베르만(株)=1백만원【코리아헤럴드접수】
▲프로야구OB베어스투수(주장[illegible]) 일동=10만4천5백원【日刊스포츠접수】
▲프로야구심판위원 [illegible]씨=5만원【同】

社會漫評



結實의 九月…

地平線

황소한마리가 챙기를 끌면 한마리의 힘보다 두배의 일을할수있다。또 콘크리트를 칠때 보통근력을 가진 세사람이 하는일과 네사람이 한는것과는 시간부터 달라 진다。

한데 기계적인 사무가아니고 창조력이 필요한 지식노동을 할때는 보통능력을 가진두사람이、머리가뛰어난 한사람을 따라가지 못할때가 많다。그뿐아니라 서로시기하고 방해해서 한사람몫도 못할때도있다。▼말하자면지식노동에있어서는 양보다 질、적재적소라야 성과가 올라간다는 것이다。전문의 한사람을 육성하는데 의예과부터치면 9~10년、거기에 군의관과정까지 마치려고하면 12~13년、판검사도얼핏보면 고시합격후 사법연수원과정만 끝내면 임용되는것처럼 보이지만 공부하는시간을따질때 남보다 10년가량노력을 더하는셈이된다。요즘인기있는 회계사·엔지니어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할만하게 되려면 미국에서는 한사람당 10만달러내지 15만달러의 사회자본투자가 필요하다고한다。▼올해들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신입사원채용시험이 예년보다 일찍 러시를 이루고있다。인재 제일주의에 눈을돌린 대기업들가운데는 필기시험을 치르는데도 있지만 인물본위로 면접에중점을두는곳이 늘었다。현대가 한해 2천5백명、삼성이 2천명、대우가1천3백명이나 채용하는 만큼 어마어마한숫자다。또 세일즈요원에 상과계통만이 아니고 공과계통의 전공자를뽑는 업체도 있다。지식과 능력을요구하는건 공통된현상이나 적극적인 책임감、창조력을 중시하는 업체가 두드러지게 많아졌다。▼지금은 사무보는데 없어서는안될 복사기제작만해도 한사원의 창의력과 앞을 내다보는 업주의 눈이 열매를 맺기까지 37년이나 걸렸다。그 대명사처럼 된 제록스는 칼슨이 발명한 것이다。그는 과거의 복사기술을 문헌상으로 조사하기위해 4년간 뉴욕도서관에 낮밤으로 다니면서 옛 기술축적에 도움을받아 제로그라피=전자사진법의 개념을 확립했다。하나 칼슨의 발명에서 23년만에 복사방법의 길은 열렸지만 상품화하는데는또 14년이란 세월이 흘러야했다。칼슨의 의욕도 가상하지만 끈기있게 상품화를 기다린 업체도 높이 평가받을만하다。▼새로 취직의 문을 두드리는 젊은이나 이들을 받는 직장이나 인재는 적재적소에 배치돼야 능력을 발휘할수 있다는점을 중시해야 할 것같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三魂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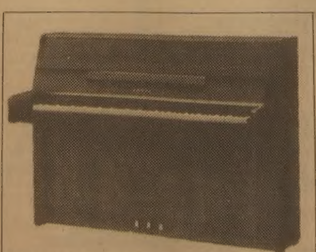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The 5th Anniversary Specials ★기 간 : 9 월 1 일~9 월30일

본사에서는 개업 5주년기념으로 올갠및 피아노 할인대매출을 실시하오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로 도입된 DX전자올갠및 신형 up right 피아노는 음악인들에게 인기리에판매중에 있사오니, 1 차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 겠읍니다.
대표 윤 호 섭 올림



CX-4 Walnut (open pore)
CX-4 Ebony Polish
$2,995 (R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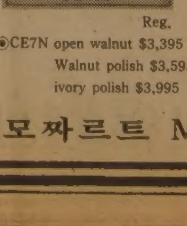
DX80 〈Reg〉 $1,595

DX90 $1,895-R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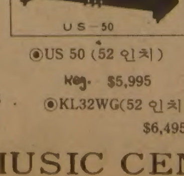
DX100 $2,395-REG
DX200 $2,995-REG

DX300 $3,495-R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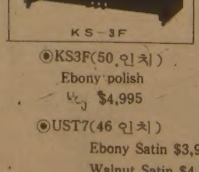
⊙새로 도입된 DX 전자올갠 전 모델(10% - 15% off)
⊙각종 신형 Model의 upright 및 그랜드 피아노(10% - 15%)
⊙기타 USED피아노및 전자올갠(30% 할인)



Reg.
⊙CE7N open walnut $3,395
Walnut polish $3,595
ivory polish $3,995



⊙US 50 (52 인치)
Reg. $5,995
⊙KL32WG(52 인치)
$6,495



⊙KS3F(50 인치)
Ebony polish
Reg $4,995
⊙UST7(46 인치)
Ebony Satin $3,995
Walnut Satin $4,095

⊙KL 502(49 inches)
Walnut Satin
Reg $4,995

Markham Place
2900 Steeles Ave. E.
Thornhill
☎ : 881-8211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 : 883-9407

가와이 KEY BOARD CENTER (모짜르트 MUSIC CENTER)

일이 있어서, 한1년 미국에서 아파트를 얻어살았다. 아파트라기보다는 2층에 주인부부가 살고, 아래층과 3층을 세놓은, 말하자면 연립주택같은데였다.

집주인은 이탈리아에서 중남미로이민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왔다는 노부부였다. 한국에대해 아는 것은 별로없으나 우리내외를 제법 환대해주었다.

그런데 일을마치고 귀국할 무렵해서 좀 당혹스런 일이생겼다. 아파트의 계약기간이 1년인데, 귀국날짜가 그보다 두달쯤 빠른것이다. 이런경우 입주때 보증금으로 맡긴 한달치 월세는 주인차지가 된다. 계약기간을 못지킨 위약금인 셈이다.

그런줄은 깨알같은 입주계약서를 보아 알고 있었지만, 몇백달러의 생돈을 뺏길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두달쯤 여유를두고 귀국날짜를 통고하면서, 마지막달 월세는 보증금으로 까겠노라고 했다.

집주인이 동의할 까닭이 없었다.

나는 떼를 썼다.

—나도 법률을 공부한 사람이다. 계약서에 아파트를 비우려면 두달전에 통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대로 두달전에 통고했으니, 당신은 다른 입주자를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고, 그 사이 아파트값이 올랐으니, 월세를 더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앞당겨 귀국해서 이익을 보면서, 위약금을 받는것은 不當利得이다.

메아리

홈律士

짧은 영어의 어거지法理論을 집주인은 말없이 들었다. 그리고는 한마디로 대꾸했다.

—내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난뒤 대답하겠소.

다음날, 변호사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란는 회답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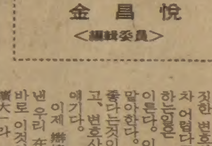
난감한 생각에 찾아간 곳이 우리교포가 경영하는 복덕방이었다. 자초지종을 듣고 난 교포의 대답이 또 명쾌하고 간단했다.

—그 사람들, 머리가 나빠서, 걸핏하면 변호사를 찾는다오. 걱정 마슈.

걱정을 말라고 하지만, 이쪽은 불안할수밖에 없다. 그런 두달을 지나, 일은 수월하게 풀렸다. 주인마님이 우리내외를 잘 보았던지, 착한 사람들 돈을 떼으면 좋지 않다는 말로, 남편을 설득했다는 것이었다. 집주인은 「마이·와이프(내妻)」를연발하면서 생색을냈다.

하찮다면 하찮은 일이지만, 나는 이때 일을 종종 생각한다. 귀국해서 法曹관계 기사를 보다가, 그 집주인이 「마이·로여(내 辯護士)」운운하던 표정을 곧잘 떠 올린다. 법이 정말 가깝고, 그야말로 생활속에 스며 있구나—싶던 인상이 깊이 남은 것이다.

우리 같으면, 이런 경우, 계약서의 조문을 따지고, 아마추어 法理論을 펼 것이다. 그만일로 변호사를 찾지는 않는다. 마치 병원을 꺼리는 어린애 심정이나 같다.



金昌悅
<編輯委員>

변호사는 언제나 높은데 있으려니 하는 것이 우리네 생각이다. 의당 많은비용이 들거라, 지레 겁을 먹는다.

이를테면, 변호사는 의사와 같다고 하겠는데, 우리 의식속에는 專門醫, 그것도 수술칼을 휘두르는 外科專門醫만 있고, 홈·닥터(家庭醫)에 해당하는 「내변호사」「홈律士」가 없는 꼴이다. 병이 깊어야 병원을 찾듯, 송사가 벌어져야 변호사를 찾는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가 하는일은 90%가 송사다. 그러다 보니 겨우 1천명남짓한 변호사중 상당수가 사무실 유지조차 어렵다고 한탄한다. 미국 변호사가 하는일은 송사 20에 기타업무 80%라 이른다. 이일을 27만5천명의 변호사가 맡아한다. 법이 많고, 변호사가 많아서 좋다는것이 아니라, 법이 그만큼 가깝고, 변호사도 그만큼 가까와야겠다는 얘기다.

이제 辯協창설 30돌(8월30일)을지낸 우리 在野法曹가 새과제로 삼을것이 바로 이것이라생각한다. 어렵게는「職域擴大」라 할것이지만, 그보다먼저, 변호사가 멀리있게된 연유를 변호사 스스로 짚어보았으면한다. 법생활에서 정말 「머리나쁜 사람」이 누구일지를 일깨우고, 법을 생활의 평면으로 끌어내려야만, 法曹가 설땅도 넓어지겠기때문이다.

李·張 어음사건관련 22명 소득세 177억 追徵

私債거래로 3백23억 벌어

출처不明어음 重課稅 방침

국세청은 李哲熙·張玲子부부 어음사건관련자 22명에 대해 모두 1백77억5천2백만원의 소득세를 추징키로 하고 해당자에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것으로 알려졌다. 1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李·張부부어음사건관련자는 사채업자 14명, 기타개인 5명, 법인3명등 모두 22명인데 국세청은 이들이 私債거래를 하여 벌어들인 소득이 총3백23억6천7백만원에 이른것으로 밝혀내고 1백77억5천2백만원의 세금포탈액을 추가납부하도록 고한것이다. 국세청은 8월말현재 11억8천2백만원을 이미 징수하고 나머지 세금에 대한 조세권확보를 위해 1백74억7천만원은 재산을 압류하여 세금을 추징키로했다.

한편 어음사기사건관련자의 세금포탈내역을 보면▲14명의 사채업자가 2백36억6천3백만원의 사채이자소득을 신고하지않아 1백42억7천9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토록부과됐고▲기타개인5명이 4억1천9백만원의 소득금액을 신고하지않아 각종가산세, 추징세등 5억3천2백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었으며▲法人3개업체는 82억8천3백만원의 소득을 누락시켜 29억4천만원의 세금을 추징토록됐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李·張부부어음사건과 관련, 이미 부도가난 共榮土建과 日新製鋼어음의 신고자에대해 자금출처를 조사중인데 출처가불분명한 어음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채업자로 간주, 무거운 세금을 부과할 방침으로있어 李·張부부사건 관련자에대한 추징세액은 더늘어날 전망이다.

8월말현재 李·張부부사건관련자에대한 과세및 추징현황은별표와같다.

李·張부부 어음사건관련자에 대한 과세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인원	소득금액	납부할稅額	납부한세액	재산압류
총계	22명	32,367,319	17,752,991	1,183,930	17,411,158
소계	19 〃	24,083,358	14,812,186	1,183,930	14,770,736
사채업자	14 〃	23,663,867	14,279,238	1,168,798	13,985,910
기타	5 〃	419,491	532,948	15,132	784,817
법인분	3 〃	8,283,961	2,940,805	—	2,640,425

(註) 稅額은방위세포함

國稅廳, 재산 백74억 압류 租稅權 확보

蘇, 시베리아가스管 건설공사에 北傀·越노동자 投入

【東京=聯合】소련은 西시베리아천연가스및 파이프라인 건설에 북괴및 베트남의 노동자를 대량투입하고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1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날 북괴노동자의 시베리아투입은 이일대를 18일간 취재여행하고 돌아온 미국뉴스데이紙의 윌리엄·섹스턴기자에 의해 밝혀졌다고 전하고 섹스턴기자는 소련 하바로프스크근교에 집결, 시베리아行을 기다리고 있던 일단의 노동자들의 가슴에 金日成배지가 부착되어 있는것을보고이들이 북한사람들임을알게되었다고보도했다.

波전국 軍警과충돌

시위대 바웬사 釋放등 구호외쳐

【바르샤바AP UPI=聯合】폴란드 자유노조탄생의 기틀이 되었던 그다니스크협정체결 2주년을 기념하는 계엄선포후 최대규모의 군중시위가 30일 바르샤바와 그다니스크를 비롯한 폴란드 전국 각지에서 벌어져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및 보안군간에 충돌이 발생했다.

示威者 둘死亡

루빈서保安軍발포

【바르샤바1日AP聯合】폴란드 남서부도시 루빈에서 31일 시위군중과 보안군의 충돌이 일어나 시위군중 2명이 죽었다고 폴란드 관영 PAP통신이 1일 보도했다.

팝매니어를 指針書 大辭典 출간

팝 매니어들의 지침서가될 「포퓰러 아티스트 대사전」(2권)이 朴元雄편저로 출간됐다.

1권에는 외국의 아티스트 3백20팀을 선정, 그들의 히트곡과 신상명세서를 총망라했으며 팝송용어해설과 래미상 역대수상자명단을 수록했다. 2권에는 뉴뮤직이 오늘날 팝음악에 미친 영향에대해 나라별로 너무 상세히 소개했다. 부록으로 골드레코드 일람표와 히트곡을 가사해설과 함께 실었다.

롤링·스톤즈 美公演실황 빈映畵祭에 出品

영국의 슈퍼스타 롤링·스톤즈와 그들의 미국공연여행을 담은 다큐멘터리영화가 빈영화제에 참가한다. 영화제작자 할·애시비가 제작한이 다큐멘터리 필름은 지난해 9월, 필라델피아에서 막내린 롤링·스톤즈의 미국일주공연실황을 담은것.

이 영화는 산·마르코에서 열리는 비엔날레에서 상영되며 롤링·스톤즈는 이를 감상하기 위해 9월5일 베네치아에 도착할 예정이다. 롤링·스톤즈는 지난달 10년만에 처음으로 튜린과 나폴리등 이탈리아에서 공연을가진 바있다. 【UPI】

中共 12全대회開幕

어제 人民大會堂서 千6백여代表 참석

【北京UPI=聯合】중공당제12기 전국대표대회 (12全대회)가 1일상오9시 (한국시간 상오10시) 1천6백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가운데 北京의 인민대회당에서 역사적인 막을 올렸다.

중공당대회대변인은 12全대회가 중공실력자 鄧小平의 개막연설로 막을올렸으며 곧이어 당주석 胡耀邦의 제12기 중앙위원회 사업결과보고가 있었다고 공식발표했다.

지난77년이후 5년만에 전당대회가 개막된 이날 수십대의 군용및 관광버스편으로 대회장에 도착한 대의원들은 2열로 도열, 곧장 인민대회당안으로 들어갔으며 수백명의 시민들이 대회장밖 1백야드거리에서 이를 지켜봤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인사이드

30년 毛숭배 清算

中共黨 12全大會의 歷史的의미

7全때 毛가만든 組織결별 弱化된 書記局역할을 強化

北京에서 1일개막된 제12차 中共黨전국대표대회(12全大會)는 30여년간 中共黨을 지배해왔던 黨主席 故毛澤東에대한 개인숭배에 종지부를 찍을뿐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 중국본토를 장악하기 4년전인 지난1945년 毛가 수립한 黨조직구조와 결별, 당서기국의 역할을 강화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中共黨은 지난 1921년7월 上海에서 창건된후 초기에는 당세확장을 위해 주로 도시지역 주민들에게 관심을 집중시켜왔었다.

지방농민들의 중요성이 처음으로 제기된것은 지난 1925년의 4全대회때였으나 이보다 3년후인1927년의 5全대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농부들이 진정한 혁명세력으로 인정받았다.

시골태생인 毛가 무명의 일개 공산주의자에서 급격히 부상, 劉少奇등과 더불어 자신을 농민혁명의 수호자로선언한것도 바로 이때였다.

이들은 國共合作의 지속을바랐던 당시의 黨중앙위원장 陳獨秀에게 反旗를들었으며 그 4개월후 陳은 蔣介石의 국민당정부가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한데 뒤이어 國共合作이 깨어지자 黨중앙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중공역사가들이 지적히 중요한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1928년의 6全大會는 창당이래의 당의기록을 정리, 요약하는 작업을 벌였다.

안보상의 이유와 소련—中共黨간의 밀접한관계를 과시키위해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6全大會는 새로운 혁명계획의 기초를 촉구함과동시에 도시무산계급의 지휘아래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단합해야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毛는 1927년말께 농부들의 무장봉기인 이른바 『秋收暴動』이 실패로 끝난뒤 비판을 받았으나 곧 복권되어 黨중앙위원에 임명됐다.

그러나 毛자신을 포함해서 『농민출신』의 대의원은 黨전국대표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후 毛와마찬가지로 湖南省출신인 李立三이 黨과 그 정치국의 실권을 장악했으나 毛로부터 도전을 받게됐다.

毛가 중국공산혁명의 명실상부한 지도자로 浮上한것은 1945년의 7全대회이다. 黨조직변경을 위한 毛澤東의 견해가 처음으로 암시된 것도 이때였다. 당중서기직의 권한을 약화시키기위해 당주석직이 신설됐다. 毛는 1976년 사망때까지 당주석직을 맡게 되었으며 이때의 黨구조는 오늘날까지계속 동일한 상태를 유지해왔다.

집권후 대회로서는 사상첫번째 전당대회인 지난1956년의 8全대회는 중공의 경제력을 증강시키고 『大躍進』을 준비하는 작업에 주력했다.

원래 1961년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9全대회는 문화혁명으로 인한 정국혼란으로 1969년에 개최됐다.

이때 毛의 후계자로 공식지명된 林彪가 국가주석 劉少奇및 그의 지지자들과의 권력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했다.

林은 당시 보고서를 9全대회에 제출, (1976년에 끝난)『프롤레타리아文化大혁명』을 계속 추구해나갈것을 촉구했었다.

그러나 林은 71년에 毛를 암살하려다 실패, 소련으로 도주하다가 죽었다.

8全大會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공지도층은 이대회에서 중공을 경제강대국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경제정책의 역점을 농업·공업·국방및 기술과학등 4개부문의 현대화계획에 두었다. 지난 76년에 숙청됐던 鄧小平은 또다시 복권되어 부주석에 임명됐다.

◇北京의 人民大會堂에서 1일 개막된 中共黨第12期全國代表大會(12全大會)광경. 이 사진은 中共관영新華社통신이 배포한 것이다. 【北京1日AP電送=聯合】

波瀾만장 行路

작은巨人 鄧小平

美·中共관계정상화主役 文革때 2번除去후 復權

毛澤東이후 중공의 최고실력자인 黨부주석 鄧小平(78)은 롤롱같은 20세기 중국역사속에서 그의 파란만장한 정치경력에 종지부를 찍을 시점에 다가서있다.

이미 예상했던대로 1일 개막되는 중공의 12全대회에서 鄧의 下野결정을 승인하면 그는 일단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게 된다.

현재 黨부주석의 직위를 갖고있는 鄧은 文革중 黨주석 故毛澤東에 의해 2번이나 제거당했다가 지난 77년 11全대회를 하루 앞두고 毛가 사망하자 다시 복권했다.

5년후 중공의 모든정책결정기구들을 점차 장악하고 난후부터 鄧은 절정기에 올랐으며 제1인자의 자리를 차지하지는 못했으나 자신의 후계자 선택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의 후계자로 지명된 전국대표대회회장 胡耀邦과 수상 趙紫陽은 나이가 든 鄧의 절친한 동료들이다. 이들은 지난 2~3년간 중공권력층의 사다리를 쉴새없이 밟아올라가 마침내 毛가 자신의 후계자로 뽑았던 華國鋒을 끌어내리기에 이르렀다.

鄧은 자신의 탁월한 수완에도 불구, 黨기구는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 그는 4천만당원의 반대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당원중 절반은 文革중 入黨한 자들이다.

鄧은 또한 행정요원들이나 軍수뇌사이의 완전한 결속도 이루지 못했다.

鄧의 영향력은 그러나 외교·경제정책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휜양말을 즐겨신는 이작은거인은 미·중공 관계의 정상화를 이룬 主役으로서 역사에 길이 남을것이다.

鄧을 주축으로한 중공의 외교정책의 또다른 특기사항은 西유럽 공산당들과의 관계 정상화였다. 西유럽과의 관계정상화는 소련의 외교정책의 가장 강경하게 반대하는 이탈리아 공산당과의 대화로 시작돼 금년 프랑스공산당과의대화로결맺음을했다.

경제및 정치분야에서 가장 괄목할일은 외국에대한 문호를 개방, 경제우선정책을펴 국민의 생활수준향상을 기하려고 한점이다.

지난 1904년 四川에서 태어난 鄧은 16세의 어린나이로 프랑스유학의 길을 떠나 구두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유지해야했다.

이 청년고학생은 대부분의 시간을 周恩來의 혁명전략傳授者로서 보냈다.

프랑스유학시절부터 鄧은 행정에 예리한 감각을 과시했으며다수의정치학논문을많이발표하기도했다.

고국에 돌아온 鄧은 共産軍각부대의 정치위원으로서 전략가적 솜씨를 보였으며 역사적인 34~35년의 大長征에 참여했고 對日戰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기도 했다.

66년 文革의 시작과함께 鄧은 공직에서 밀려나 紅衛兵들의 야만적인 비판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6년후 그는 갑자기 한 연회석상에 나타나면서 권좌에 복귀, 부수상직에 복직됐는데 이때 周는 이미 암으로 시름시름앓고있어서사실상정부수뇌의자리에오른셈이었다.

周가 지난76년 사망한직후, 鄧은 다시한번 공직을 박탈당했으나 같은해 9월 毛가 사망한뒤 毛의 처 江靑을 비롯한 4人幇이 체포된것이 계기가 돼 77년 여름 다시 권좌에 앉게되었다. 鄧은 최근 건강이악화 된것으로 알려져있다. 【北京=聯合】

추계 성동고교동문 야유회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철도 어느덧 다 지나가고 산들바람이 부는 시원한 가을이 다가오는 이때 푸르 고 푸른 잔디밭에서 동문들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저 합니다.

또한 즐거운 게임과 푸짐한 상품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가족동반 전원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및 장소

1982년 9월11일(토) 11시
MORNINGSIDE PARK
(Morningside & Ellesmere Rd.)

(※예전과 동시장소)

나) 연락처 : 회장 김봉균(☎ 267-5550)
총무 유승관(267-8948(B))
(267-1380(R))

회장 김봉균

영남골프토너먼트

아래와 같이 친목을 갖고저 기회를 마련하였사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가를 바랍니다.

- 시 일 : 1982년9월11일(토) 오후1시
- 장 소 : Richmond Hills Golf & Country Club (Hwy 7 & Bathurst 북향우쪽)
- 참가자격 : 영남향우
- 회 비 : $35(식사포함)
- 접수자 : (우천시는 연기함)

서 261-2197 심 743-5830
안 745-1322 주 741-0930
최 247-1090 우 851-4717
서 249-6830 이 622-0219
심 741-7907 최 745-4684

- 시 상 : 그로스 1, 2, 3등 네트 1, 2, 3등, 롱게스트, 니어리스트, 장려상, 행운상, 향우상 (※각종 부상이 있음)

주최 : 영남향우회 일동

공 82년 경로잔치 고

벌써 가을입니다.

본 한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어버이님들을 모시고 82년 경로잔치를 거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교민께서는 적극적인 후원을 바라오며, 더욱 물심양면으로 돕고자 하시는 분은 한인회 오간사(755-9288)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1982년 9월25일 오후1시
장소 : 오리엔탈 팔레스
출연 : 서울 훼밀리 악단
민요가수—박청자, 가야금 장고등 특별출연.

주관 : 토론토 한인회

후원 : 총영사관
노년회
토론토 교역자협회
외환은행
한일은행
조흥은행
KOTRA
실업인협회
코리아타운 번영회
무역인협회
체육회 캐나다지부
88년 올림픽후원회
승공문화협회
동우회
호남 향우회
영남 향우회
한인신용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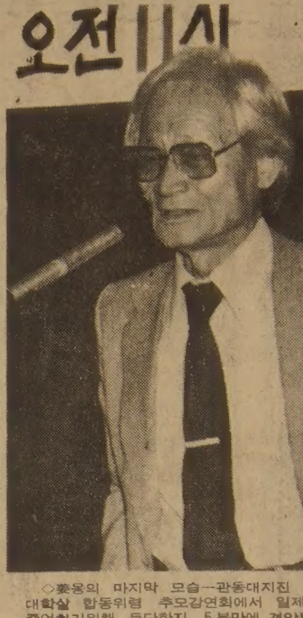
토론토 한인회장 박인순

韓人 慘狀 "죽음의 證言"

어제 關東대학살 기념강연중 姜錫天옹 졸도…숨져

피를 吐하듯 日人蠻行 폭로

마지막말 "어느 日人은 위령제 지내…"



◇姜옹의 마지막 모습—관동대지진 한국인 대학살 합동위령 추모강연회에서 일제만행을 증언하기위해 등단한지 5분만에 격앙된 감정을 누르지못하고 쓰러져 숨졌다. <1일상오 11시45분 서울YMCA친교실에서>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죽음으로 증언하는것일까. 관동대진재(關東大震災)의 첫위령제를 지내던 1일 南宮 姜錫天옹(82·서울城北區貞陵1洞113의45)은 그때의 참상을 자신의 「죽음」으로 증언했다. 59년만에 처음으로 마음껏 분노를 터뜨려 마음은 후련해졌으나 할아버지의 육체는 격분을 이겨내지 못했다. 증언도중 쓰러져 수많은 후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병원에 옮겨졌으나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59년이라는 긴세월도 삭여주지 못했다는것을 모두가 절감한 현장이었다.

姜옹은 1일상오11시 서울YMCA 2층 친교실에서 열린 「관동대진재 한인위령추모강연회」에 연사로 참석했다. 관동대진재당시의 생존자인 崔承萬씨(85·전 仁荷대학장)에 이어 2번째로 등단, 자신의 체험과 참상을 울먹인 어조로 얘기해 나갔다. 팔순의 나이와 깡마른 체구와는 달리 그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장내를 압도했다. 청중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로부터 20~30대의 대학생과 젊은이들로 꽉차 있었다. 그가 피를 토하는듯 일본인들의 조선인학살 진상을 얘기해나가자 장내는 숨을죽인듯 잠잠해졌다. 5분이 지났을까. 그의 얘기는 『지난 6월19일자 한국일보에서 한일본인교사의 글을 읽었습니다』라는 대목에 이르고 있었다. 그는 끔찍한 관동대진재의 사실을 생생히 기록한 신문의 내용을 인용했다. 한 일본인 교사가 불음을 당한 수천명의 조선인의 무덤에서 위령제를 지낸다는 얘기도 소개했다. 『일본사람중에서도 이렇게 양심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에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옵니다』 이말을 마치는 순간 그는 착잡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듯 얼굴에 가벼운 경련을 일으켰다. 그래도 증언을 계속하려는듯했다. 『일본인의 정신상태가 이상해지며…』 그말이 채 끝나기도전에 그는 단위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姜옹은 급히 서울大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소생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姜옹은 관동대진재당시의 참상을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인사중 몇명남지않은 생존자중의 한사람. 忠南公州출신인 姜옹은 관동대지진이 일어난 1923년 총독부장학생으로 東京상대 예과2년에 재학중이었다. 그는 장학생으로 선발돼 京城제1고보(현京畿高)를 졸업, 총독부에 근무하던 경력이 있다. 姜옹은 지금도 그때의 조선인학살은 일본군부와 경찰이 민간인을 선동, 유도한 것으로 굳게 믿고있다. 『조선인이 습격 방화 약탈한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그는 곧 한국인 유학생10명과 東京사까바시(板橋)경찰서에 구금됐다. 경찰의 『보호』라는 명목이었다. 그가 10여일후 풀려났을때 『조선인 대학살』은 끝난뒤였다. 그는 곧 당시 東京YMCA총무 崔承萬씨등 유학생들과 함께 진상조사단을 구성, 한국인의 피해상황을 파헤치고 일본정부에 항의하는 활동에 앞장섰다. 제1고보재학때부터 강직하고 혈기넘치는 성격으로 알려져있던 그로서는 일제의 만행에 대한 분노를 누를수 없었던것. 이같은 姜옹의 의기와 민족적감정은 대학졸업후 일본 미쯔비시(三陵)상사에 근무할때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한국인 광부에대한 차별대우와 착취를 참지 못하고 사장에게 직접 항의하다가 미움을 사기 일쑤였다고 고인의 친지들은 전한다. 姜옹은 태평양전쟁말기 東京에 대한 연합군의 공습이 강화되자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로 돌아와 은둔했으나 끝까지 창씨개명을 거부하는등 민족적기개를 잃지않은 숨은 애국지사였다. 광복후 美군정청관재국을 거쳐 대한중석에도 한때 근무하면서 대한적십자사상임위원, YMCA회원등으로 사회활동을 해왔다. 최근에는 서울城北區貞陵1洞113의45 자택에서 부인 尹和順씨(81)와 함께 지내며 산책과 독서로 소일해왔으나, 해마다 열리는 YMCA관동대진재한인위령추모강연회에는 빠짐없이 참석해왔다. 그는 또 최근 일본교과서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각료들의 망언사태가 일어나자 고령을 무릅쓰고 로터리클럽등에서의 강연등을 통해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고 군국주의의 부활을 경고해왔다. 최근에는 기우찌(木內)일본외무성 아주국장이 내한하자 개인적으로 만나 일본의 자세에대해 질책을 하기도했다고 맏사위 李宗夏교수(53·延世大東西문제연구원장)는 전한다.

李교수에의하면 姜옹은 올해 추모강연회를 앞두고는 유난히 신경을 쓰는듯했다. 자신이 작성한 「살풍인」이라는 제목의 강연원고를 사위에게 보내 검토케했으며 원고마무리를 위해 3~4일간 밤잠을 설치기까지 했다. 姜옹은 1일상오 강연회에 참석하기위해 집을나서며 부인에게 『오늘은 일본사람들에게 꼭 한마디해야겠다』며 결연한 모습을 보였다. 가족들에의하면 姜옹은 평소 혈압이 다소 높았을뿐 나이에 비해 정정했다는것. 故人의 유족으로는 부인과 1남 宗씨(55·공예가)등 3남1녀가 있다. 유해는 1일하오 자택으로 옮겨졌으며 5일상오 [illegible]선영에 안장될 예정이다. 【姜秉泰기자】

關東대지진때 虐殺된 韓人 59년만에 첫慰靈祭

宗敎단체별…추념講演도

59년전 일본關東대지진 때 일본인들에의해 무참히 학살당했던 재일동포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위령제가 1일상오 전국 종교단체별로 일제히 엄수됐다. 관동대지진은 1923년 9월1일 상오11시58분 일본 關東지방일대를 강타했는데 확인된 한국인피살자만도 6천여명이나된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합동위령제가 열린것은 59년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하오2시 독립유공자협회(회장趙擊鎭)주관으로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는 「關東지진 대학살 한국인추념강연회」가 열렸다. 이날 강연회에서 당시 재일東京YMCA총무였던 崔承萬옹(85)의 「대지진실상」보고에이어 尹炳奭교수(仁荷大) 李炫熙교수(성신여대)가 강연했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은 전국 각사찰에서 이날 상오11시 합동위령제를 열었는데, 조계사위령제에는 조계종 黃[illegible]총무원장을 비롯한 신도5백여명이 모여 무고한원혼의 천도왕생을 기원했다. 明洞성당에서도 상오11시 58분부터 1분간 희생자들의 영혼을 달래는 타종에따라 明洞의 행인들이 묵념을했으며 하오6시에는 위령미사를 올렸다. 또 서울鍾路區慶雲洞 천도교 중앙교당에서도 李永福교령등 교역자 2백여명이모여 합동위령제를 가졌다.

在日民團서 추념식

【東京=聯】재일거류민단중앙본부(張聰明단장)는 關東대지진 한국인학살사건 59주년을맞아 1일상오11시 民團중앙본부에서 關東대지진 수난동포추념식을갖고 고인들의 영령을 위로했다. 在日한국인 인권옹호투쟁 전국연합회도 이날 도오꾜시 중앙YMCA에서 개최된 「關東대지진 한국인학살 59주년기념식」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때문에 수천명이 학살된 關東대지진사건은 영원히 잊을수없는 역사의 기록』이라고 지적하고 『일본은 현재도 在日한국인에게 범죄자와 같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등 법률적으로 온갖 부당한 처우를하고있다』고 규탄했다.

◇서울조계사에서 열린 관동대지진 한국인 희생자 합동추모 위령제。

돈받고 10여차례 通關묵인

돈준2명追加수배 密輸규모·관련자 늘듯

稅關員 밀수共謀

「세관원 밀수공모사건」을 수사중인 치안본부 외사과는 1일 신병이 확보된 趙啓準씨(40·金浦세관 여권과)등세관원들이 黃孟順씨(44·여)등 외에도 裵甲淵씨(48·여·서울龍山區二村洞301의64) 朴洪來씨(33·서울中區筆洞27의132)등 2명으로부터도 돈을받고 10여차례에걸쳐 밀수품의 통관을 시켜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裵씨등2명도 긴급수배 했다.

한편 경찰은 전국에 지명수배중인 세관직원 李[illegible]씨(37·여권과주사보)등3명의 신병이 확보될경우 밀수의규모와 관련자가 더 늘어날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상습밀수꾼인 裵씨와 朴씨는 지난30일 하오 黃씨와함께 밀수품을 여행용가방에 숨겨넣고 입국, 세관원 趙씨등의 편의제공으로 검색대를무사히 통과했으나 黃씨가 경찰에 붙들리자 그대로 달아났다는것.

경찰은 黃씨의 수첩을 압수, 지금까지의 밀수규모를 캐고있는데 이수첩에는 공모한 세관원들의 근무날짜와 시간이 자세히 적혀있었다. 경찰은 이밖에도 이들이 상습적으로 들여온 밀수품의 국내처분과정을 캐고있다.

동료女工 목졸라 살해후 現金털어 도주했다 잡혀

31일밤10시께 서울 恩平區[illegible]洞43의26 주택가 골목에서 세명공업사(봉제공장)여공 金모양(18·경남密陽)이 직장동료 朴相淑양(12·恩平區葛峴洞326의7)을 목졸라 숨지게하고 朴양의 핸드백에서 현금 6만2천1백원을 털어 달아났다가 1일 아침 경찰에 붙잡혔다.

金양은 이날밤 朴양에게 『공장근처 구멍가게에 외상값을 갚으려는데 5천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했으나 朴양이 거절하자 목을조른뒤 나일론끈과 혁대로 목을 졸랐다고 경찰에서 자백했다.

金양은 범행을저지른뒤 공장근처여인숙에서 처음만난 낯선남자와 하룻밤을 지내고 1일상오10시께 귀가하다 잠복경찰에게 붙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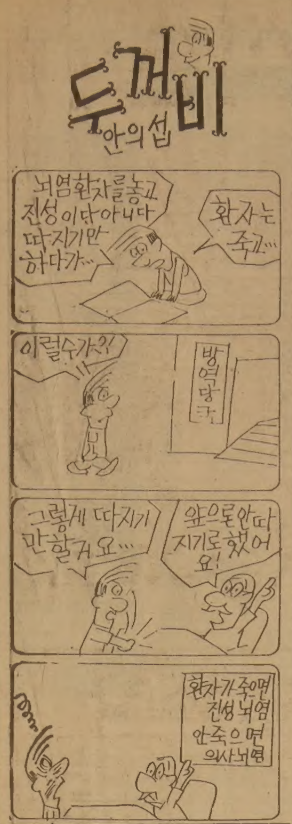
金양은 지난3월상경해 언니집에살며 7월초 세명공업사에 입사했는데 평소자신을 언니라고부르며 따르는 朴양과 친하게 지냈다.

한편 숨진朴양은 나이가어려 취직이 안되자 언니 相美양(14)의 주민등록증으로 지난해 7월 이회사에입사, 6만2천원의 월급을 받아왔다.

택시운전사 칼찔려 트렁크서 발견

1일상오7시30분께 경기 南楊州郡九里邑峨川里65의2 진성레미콘앞 둑길에서 월성택시소속서울4바3105호 택시운전사 裵弘우씨(27·서울東大門區中和1洞330)가 가슴과 배등4군데를 칼에 찔린채 차트렁크에서 신음하고 있는것을 행인이 발견, 서울위생병원으로 옮겼으나 중태다.

裵씨는 이날 상오6시30분께, 천일화학소속 서울4바5069호(운전사 鄭仁烈·37)에 실려 서울城東區龍踏洞에서 30세가량의 남자2명을 태우고 교문리로 가던중 차안에서 칼에 찔렸다는 것. 경찰은 택시강도의 범행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腦炎증세 零細民자녀 치료비 支援

【全州=鄭秉鎬·趙在鎬기자】 속보=趙澈鎬전북도지사는 1일 뇌염증세환자중영세민자녀는 해당시군의 이웃돕기자금으로 치료비를 지원토록 지시하고 각보건소에대해 뇌염증세환자중 중환자는 반드시 종합병원으로 후송, 입원치료토록 시달했다.

한편 전북 高敞郡보건소는 지난달26일이후 관내에서 발생한 의사뇌염환자13명중 현재 채취된 8명에대한 1차분석결과, 지난달 30일 숨진 박은진양(4)만이 양성반응을 보였으나 박양이 미숙저 2차분석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진성여부판정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全南 뇌염多發지역 임시班常會 소집

【光州】전남도는 1일밤 8시를기해 뇌염다발지역인 木浦·海南·靈光·莞島·珍島·新安·高興·靈岩·寶城·務安·羅州·咸平郡등 12개시·군지역의 임시반상회를 소집해 철저한 예방대책을 시달했다. 【聯】

擬似 뇌염환자 忠北서도 6명

【淸州】충북도내에서도 최근 의사뇌염환자가 6명이나 발생했다.

1일 도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전모양(7·충북沃川郡靑山面)등 3명의 어린이가 고열에 구토를 하는등 뇌염과 비슷한 증세를 일으켜 충북도립의료원에서 진찰한 결과 의사뇌염으로 밝혀져 31일 대전충남대학부속병원으로 후송 치료를 받고있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박모양(6·충북沃川郡靑山面)이 비슷한 증세로 충남대학부속병원에 입원했으며 이모양(8·충북淸原郡江內面)도 같은날 충북도립의료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聯】

修學여행 女高生 40명 집단食中毒

【東草】雪嶽山에 수학여행을와 東草시설악동B지구 국제산장여관(주인 張泰鎭·37)에 투숙중이던 金福順양(17)등 경기 安城여상 2학년생 40명이 여관에서 마련해준 저녁을 먹고 집단식중독 증세를 일으켰다.

安城여상5백56명의 학생들은 金相起교장의인솔로 지난30일 3박4일 예정으로 설악산에 왔는데 31일하오7시부터 8시사이 여관에서 준 멸치조림 오뎅국 쇠고기볶음 야채샐러드등으로 저녁식사를하고 잠자리에들었다가 이날밤11시께부터 金양등 40명이 고열에 심한 두통과 구토 설사등 식중독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도립속초병원과 [illegible] 새한의원등에 분산, 치료를 받고 모두 여관으로 되돌아갔다.

새한의원 원장 鄭榮來씨(46)는 『단순식중독증세로 보인다』고 말했다. 【聯】

雪嶽山 생물권 보존지역 指定

유네스코서 처음

국립공원 雪嶽山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유네스코 파리본부는 1일 지난6월하순 파리에서 열린 인간과 생물권 계획조정위원회에서 한국의 雪嶽山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고 한국에 통고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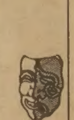
雪嶽山이 보전지역으로 선정된것은 이 산이 중요한 생물군계를 이루어왔고 다른지역에서 볼수없는 식물들이서식하고있으며 일부훼손된 자연경관을 원형으로 복원시킬수있다고판단됐기때문이다.

유네스코는 雪嶽山 이외에 자이레 루피다계곡등 6개지역도 선정했는데 지금까지 58개국 2백15개지역 1억1천2백만ha가 보존지역으로 정해져있다.

핸들 12年

58세의 여자택시운전사 金榮子씨

"合乘 금지해도 나에겐 상관없어요"



58세의 여자택시운전사 金榮子씨(사진)는 「합승단속」이 당장 실시되더라도 별로 겁날게 없는 사람이다. 중앙운수의 서울1아4406호 택시를 몰고다니는 그녀는 경력12년째인 지금까지 거의 합승을 해본적이 없다. 사납금 6만8천원중 일당으로 적립하게 돼있는 1만2천5백원을 회사에서 뵈쥐 내지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승객에게 미안해서 합승하자는 말을 못하는 천성이다. 시외로 나가자는 손님은 터미널까지 태워다주고 그곳의 차를 타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루 1만원정도 벌어 한달15만원으로 두아들과 살림을 꾸려간다.

한때는 「사장」이었다. 빚을내어 삼륜차를 사서 굴리다가 실패했다는 것이다. 스스로 핸들을 잡기로 하고 이웃이알까 부끄러워 운전자교본을 품에숨겨 학원에 다니며 배워 47세때인 71년 1등으로 면허를 땄다.

그녀의 반생은 기구하다. 해방20일전 남편과함께 [illegible]에서 월남했으나 4년뒤 남편은 폐렴으로 죽고 그녀도 심장이 나빠져 치료차 서울에 오게됐다. 아들 振武씨(37)를 忠州의 큰아버지댁에 맡겼는데 6·25직전 한번 만나 보고 난리통에 생이별했다. 大邱피난살이를 거쳐 仁川도립병원 간호보조원등으로 일하다 56년 재혼했다. 그러나 원목조합에다니던 두번째 남편도 목재에 머리를 맞아 66년 타계하고 그와의 소생인 李基(22·회사원) 舜基(19·은행원)형제를 홀로 키웠다. 淸凉里시장에서 생선묶도 팔고 구호물자장사도 해보고 닥치는대로 싸우듯 살아왔다.

큰아들을 67년 高大토목과 1학년때 친척의 알선으로 다방에서 한번 만났었다. 서로 얼굴을몰라 약속대로 시계를 풀어놓고 기다리는 아들과 만난뒤 사는꼴이 부끄러워 「도망쳐왔다」면서 「도망」자에 액센트를 준다.

지금 데리고있는 두아들이 이제 그만 쉬라고 틈이날때마다 말리지만 몸이 허락할때까지 핸들을 놓지않을 생각이다. 항상 새차를 주는 회사에 감사하면서 동료 남자운전사들에게 미안해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큰아들을 만날수 있지만 생활이 더 나아질때까지 참기로 한 감상적 이기도한 [illegible]다.

일에쫓겨 [illegible]2洞의 셋집주소도 모르는 그녀는 눈물이 괴는데도 입으로는 웃는 여자였다. 【任喆淳기자】

시한폭탄은 私製 高性能

한국선수단 搭乘機

【사웅파울루】(속보) 한국여자배구대표 선수단이 탑승한 미국 팬암소속 PA 451기(보잉747)에 장치됐던 시한폭탄이 30일(현지시간) 美연방수사국(FBI)으로 이송됐다.

FBI는 『비행기에 장치된 시한폭탄은 고성능사제폭탄이었다』고 밝히고 『만약 이폭탄이 기내에서 터졌을경우 비행기가 산산조각이 나는 참사가 빚어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중인 FBI는 30일(현지시간) 이비행기에 탑승했던 한국과 일본선수단의 숙소를찾아와 『다른나라 배구선수단과 원한을 살만한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등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 한국선수단은 『전혀 그럴만한사유가 없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번사건에대해 브라질의 연방정부경찰도 계속 수사를 펴고있다. 【聯】

독버섯 먹고 9명 食中毒

【濟州】독버섯 주의령이 내려진 가운데 들에서 따온 독버섯을 먹은 두가구의 가족 9명이 중독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다.

31일 밤11시께 濟州市龍潭2洞673 고복만씨(45)집에서 이날낮 성묘하러 갔다가 따온 버섯으로 찌개를 끓여먹은 고씨의 부인 임순온씨(42)와 장남 홍신군(20)등 고씨를 제외한 일가족 5명이 구토, 설사를 하고 정신을 잃는등 중독증세를 일으켜 濟州市 나사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다.

또 이날밤12시께 濟州市吾羅2洞638 문형식씨(46)집에서도 들에서 따온 버섯으로 찌개를 끓여먹은 문씨의부인 현정순씨(45)등 가족 4명이 비슷한 중독증세로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다. 【聯】

경북月城 1명입원

【大邱】경북月城지방에서는 1일 이모군(7·경북月城郡陽南面)이 의사뇌염 증세로 경북대의대 부속병원에 입원했다. 【聯】

法院支院·검찰支廳 신설4곳 業務개시

신설되는 전국 4개지방법원지원및 검찰지청이 1일개원및 개청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새로 문을연 곳은 경기城南·경남蔚山·강원寧越·전남海南지원 및 지청이다.

또 城南지원및지청은 城南市와 廣州郡을, 蔚山지원및지청은 蔚山市·蔚州郡과 梁山郡을, 寧越지원및 지청은 寧越郡과 旌善郡을, 海南지원 및지청은 海南郡과 莞島郡을 각각 관할하게된다.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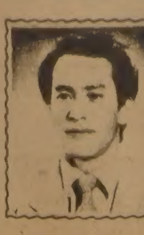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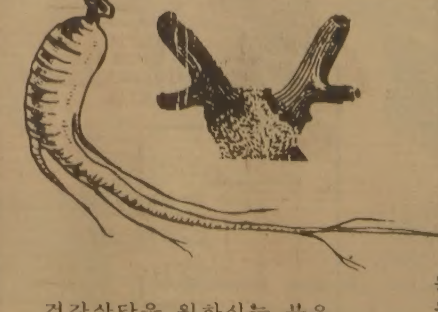
— 경 력 —

★ 마니노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밴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 부동산 브로커



전화 : (B) (416)497 8900 채 준 석
(R) (416)633 7892 (David Chae)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中國良藥 大量供應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맛사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서울 國際卓球대회 폐막

여자、단체·개인전휩쓸어

한국、5種目 석권

제2회 서울오픈 국제탁구대회는 한국이 7개종목중 남녀단체전·여자단식·여자복식·혼합복식등 5개 종목을 석권한 가운데 31일밤 잠실 종합체육관서 폐막됐다.

한국은 여자탁구가 전종목 우승을 거두었으며 남자탁구도 단체전서 강호 스웨덴 日本을 제치고 우승, 가장 값진 성과를 올렸다.

여자단식 결승전에서 한국의 신예 梁英子(18·裡一女高3년)는 申得花(부산코카콜라)를 21—13, 22—20, 21—13으로 완파하고 우승, 한국여자탁구를 이끌어나갈 새로운 스타로 등장했다.

한편 스웨덴의 발트너(16)는 남자 단식결승전서 美國의 강호 에릭·보간을 3—0 스트레이트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최종일결승전적

▲남자단식
발트너(스웨덴) 3 (21—19, 23—21, 21—19) 0 보간(미국)

▲여자단식
梁英子 3 (21—13, 22—20, 21—13) 0 申得花

▲남자복식
마에하라·시이또(일본) 2 (21—15, 17—21, 21—11) 1 아펠그렌·발트너(스웨덴)

▲여자복식
安海淑·梁英子 2 (21—19, 21—17) 0 尹璟美·黃男淑

▲혼합복식
金琦澤·黃男淑 2 (21—15, 21—13, 8—21) 1 사이또·이나게(일본)

亞洲야구선수권大會 내년서울서

8년만에 復活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가 부활된다. 1일 잠실종합전시관 회의실에서 열린 아시아탁구연맹(BFA) 총회는 75년 제12회대회(서울)를 끝으로 중단되었던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를 부활키로 결의, 제13회대회를 83년9월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81년 마지막으로 가입한 새회원국 中共이 불참한가운데 회장국인 한국을 비롯, 6개국회의 대표들은 아시아 선수권대회의 엔트리를 임원6명, 선수20명으로 확정, 선수 20명에 대해서만 대회개최국이 체재비를 지원토록 했다.

이날 총회는 주최측의 준비소홀로 예정보다 다소늦게 시작됐으며 회의장 마이크및 통역사전점검이 없어 잠시회의진행에 혼란이 있었다.

아시아연맹은 5일상오 10시 2차회의를 열어 헌장및 규정 개정안을 다룰예정이다.

세계여자排球 상파울로 制壓

【상파울루=聯】 제9회세계여자배구선수권대회에 출전중인 한국대표팀은 1일 새벽(한국시간) 이곳 국립체육관에서 거행된 4일째 4차전 경기에서 상파울루 선발팀을 3—0으로 제압, 1승2패를 기록했다.

한국은 이날 경기에서 李榮宣 李云任 郭宣沃 南明禮 朴美姬등 2진선수들을 기용했으나 15—0의 퍼펙트승을 거뒀다.

제2세트에서 한국은 잦은 범실로 부진한 경기를 했으나 15—10으로 이기고 마지막 3세트선 朴美姬의 속공과 郭宣沃의 화려한 오른쪽 공격등으로 15—1로 낙승했다.

◇3차전
한국 3 (15—1, 15—10, 15—0) 0 상파울루 우루파
(1승2패) (3패)

막강한 파워… 霸氣 넘친다

◇홈그라운드서 우승을 목표로 맹훈련을 하고있는 한국대표팀.

優勝 6 어디로 — 한국戰力

서울 世界野球선수권 4일 플레이볼

세계 야구선수권대회가 이틀후로 다가왔다. 4일 잠실야구장서 개막되는 제27회 세계 야구선수권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美國, 日本, 自由中國등 10개국이 출전, 14일까지 11일간 열전을 벌인다.

특히 프로야구 탄생으로 새로운 고비를 맞은 한국 아마야구가 이번 세계대회서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주목거리이다.

7월26일부터 영동 유드·호스텔에서 합숙훈련을 실시중인 한국대표팀은 1일 상오 필승을 다지는 결단식을 마치고 선수단숙소인 워커힐에 들어갔다.

80년도 제26회 東京세계선수권대회서 日本과 함께 공동준우승을 차지한 한국의 이번 대회 목표는 물론 우승이다. 지난대회 우승팀인 강호쿠바의 불참으로 한국의 우승전망은 한층 밝아졌다.

이번대회서 한국과함께 우승을 다툴것으로 예상되는팀은 美國과 日本, 自由中國。 지난 6월 아바나대회서 쿠바를 눌러 파란을 일으켰던 도미니카가 복병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대표팀은 과연 정상을 노릴만 한가.

한국대표팀은 金奉淵 金一權 袁大雄 金用熙 李萬洙등 지난대회 준우승의 주역과 실업팀의 베테랑들을 프로에 빼앗겼으나 힘이 좋은 대학선수들을 대폭기용, 신진대사를 이루었다.

魚友洪감독은 「이번 대표팀은 노력과 패기를 겸비했다」고 전제하면서 「국제경험이 많은 주전선수들이 경기의 주도권을 잡으면 신진선수들이 이분위기에 합류, 막강한 힘을 발휘할수 있을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守備 어느때보다도 완벽"

歷戰의老將 崔東原등 球質다른 7투수 상대팀 虛따라 고루起用

金在博·李海昌·張孝祚의 砲火타선 健在

◇崔東原　◇金始眞　◇宣銅烈　◇沈載元
◇金在博　◇李海昌　◇張孝祚　◇柳斗烈

강호쿠바不參 美·日과 角逐戰

특히 魚감독은 수비가 과거 어느때보다도 완벽하다는 점을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내에서 어깨가 가장좋다는 柳斗烈과 金貞洙가 교대로 레프트를 지키고, 센터의 趙城玉과 라이트의 張孝祚도 강한 어깨를 갖고있다.

내야수비에서는 유격수 金在博이 건재하고 2루의 鄭求善과 朴榮泰가 견실한 플레이로 金在博과 호흡을 맞출수 있을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제는 투수력이다.

코칭스태프는 아직 상대팀의 전력을 평가하고 있지못하지만 일단 경기가 시작되면 각팀의 특징을 분석, 구질이 다른 7명전원을 추전으로 풀가동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역전의 노장崔東原과 金始眞외에 힘의 야구를 하는 美國과의 대전서는 볼이 빠른 宣銅烈을 내세울계획이고 吳泳日의 속구와 슈트는 日本타자들을 제압하는데 한몫할 수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전통적으로 한국에 강한 自由中國과의 대전에는 기교파인 任昊均과 朴東洙중 1명을 내세울 방침.

그러나 왼쪽타자를 요리할 좌완투수가 초년병 朴鶴俊밖에 없어 약점으로 지적되고있다.

타순에 있어서는 1번 金在博 2번 趙城玉 3번 지명타자 李海昌 4번 張孝祚가 확정적이고 5번 柳斗烈 6번 鄭求善 7번 李碩揆 8번 沈載元 9번 韓大化순으로 예상되고있다.

【裵奕根기자】

◇한국야구대표단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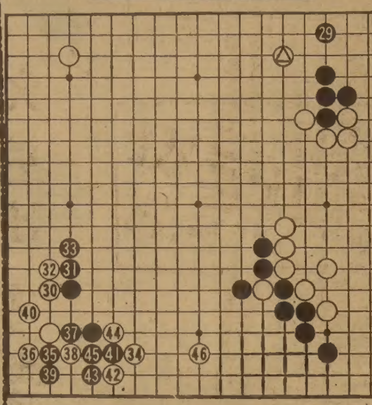
위치	이름	나이	신장	체중	성적	소속
투수(7)	金始眞	23살	189cm	75kg	2승	경리단
	崔東原	25	179	79	1승1패	한전
	任昊均	26	175	65	2패	〃
	宣銅烈	20	183	79	5승1패	고대
	吳泳日	22	185	82	2승4패	인하대
	朴東洙	22	174	70	3승1패	동아대
	朴鶴俊	21	178	76		고려대
포수(3)	沈載元	29	179	72	·267	한국화
	金鎭雨	25	188	85	·273	인하대
	韓文擬	22	173	70	·300	동아대
내야수(7)	金相勳	23	180	75	·294	〃
	李碩揆	24	178	75	·217	경리단
	鄭求善	25	178	75	·285	〃
	韓大化	21	177	72	·381	동국대
	金在博	28	174	70	·345	한국화
	朴榮泰	24	180	76	·217	동아대
	李善雄	22	173	75	·195	인하대
외야수(6)	李海昌	29	180	70	·429	한국화
	朴鍾勳	23	176	74	·358	상업은
	趙城玉	22	176	73	·250	동아대
	張孝祚	25	174	74	·385	경리단
	柳斗烈	27	172	73	·120	한전
	金貞洙	23	177	77	·170	고려대
평균		24살	178·2	74·5	·280	

스타

「엘레지의 여왕」 李美子 23년간 히트曲묶어 出盤

엘레지의 여왕 李美子양이 가수생활 23년만에 처음으로 그동안의 히트곡을 묶은 「이미자 메들리 40」<사진>을 출반했다.

제14기 名人戰 3次予選 決勝



第1局 第5譜 29~46 (각4시간·덤5집반)
白 盧永夏(7段)
黑 洪鍾賢(6段)

올해 35살인 洪6단은 64년4월 法大재학중에 초단으로 입단했다가 그해6월 아마추어로 전환되더니 이듬해 제1회아마國手位를 쟁취하고 한·일대학생바둑대회와 동양3국바둑대회의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각각 한국이우승하는데 큰공을 세워 일본바둑계에까지 이름을 떨쳤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뒤 69년에 다시 입단대회를 거쳐서 초단에 입단, 71년에는 제9회청소년盃우승, 77년 제21기國手戰준우승, 79년 名人戰본선진출등 눈부신 활약을 해왔다. 「학사棋士」답게 이론에밝고 전투에 날카로우면서도 심리가 짭짤하다는 평인데 역시 전문기사로 재출발한것이 시기적으로 핸디캡이었는지 타이틀을 따지못한것이 아쉽다. 더구나 이바둑은 몸컨디션이 좋지않은 탓인지 초반에 형세를 몹시 상했다. 우상귀를 黑29로 지킨데까지 黑이 당할뿐, 白은 유유히 30에선착하여 호조다.

짓밟히는 黑大家

黑31은 이제와서 부득이하다. 32자리에 젖히는것은 전보에지적했듯이 白△표가 와있기때문에 참고도의 축이 성립되지 않는다.

盧7단은 白32까지 밀어놓고 34。 임기응변의 호착이었다. 34로 45자리에 붙이는 정석은 하변黑집이 크게굳어진다. 白38도 임기응변。 그리고 白46으로 黑집을 온통짓밟게되었다. 이과정의 사연은 다음보에서 다시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05>

朴婉緖 作　金光培 畫

미리 온 아이 ⑧

이제 그녀의 방은 빈 방이 아니었다. 비록 신생아에도 못미치는 미숙한 것이긴 하지만 콘크리트 벽에 숨결을 불어넣을만큼 힘찬 생명력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 작은 아이는 방안에만 가득차 있는게 아니라 오목이의 마음속에도 가득찼다.

그녀는 그 아이의 부피로 그녀의 마음이 터질듯이 부푸는걸 느꼈다.

『난 이제 고아가 아냐』

고아가 고아를 면하는 길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길밖에 없다고 한 일환이의 말뜻을 이제야 알아들을 것 같았다.

아기가 소중했다. 너무 소중해서 과분한 보물을 가졌을때처럼 불안했다. 문득 방안에 아기가 없어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번도 값진 보물을 가져본 적이 없기때문에 별안간 생긴 소중한게 자기 거라는게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하던 일을 내버려두고 허둥지둥 방안으로 들어갔다. 아기는 새근새근 자고있었다. 새근새근…。 그러나 콘크리트 벽까지 흔들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 미약한 숨결이었다.

그녀는 아기옆에 누웠다.

나는 이 아기를 지켜야돼。 산모에게 아기를 지키는 일보다 더한일은 없거든。 아기를 낳은 집에선 왜 대문에 금줄을쳐서 사람을멀리할까? 아무리 일많은집에서도 왜산모에겐 부엌일도 바느질도안시키고 아기와 더불어 몰록잠만 자게하나? 알지못할 먼곳으로부터온 아기가 다시먼곳으로 사라질까봐 지키게함일거야。

나라고 아기와 더불어 오붓한 안식을 누리지못하란법있나。 아기 아빠가 아직도안돌아온건 자기가 아빠가 된걸 아직도 모르고있기때문일게다。 돌아와서 그것을 알게되면 아마 모자의 단잠이 깰세라 소리 죽여 부엌에 나가 자기 밥을 챙겨먹겠지。 아침에도 먼저 일어나 가만가만히 미역국을 끓이고 기저귀를 빨겠지。

아기덕에、 나의 아들덕에 생전 처음 마음놓고 쉬어보는 거야。 쉬다는 것처럼 큰 호강이 또 있을까?

오목이는 느긋한 미소를띠고 깊이깊이 잠들었다。 산후 처음의 수면이었다。

찬바람처럼 선뜩한 인기척에 그녀는 깜짝 놀라면서 깨어났다。 우선 옆에 누운 아기 먼저 더듬어보았다。 배로 숨쉬는 아기의 숨결은 끈 만져졌다。

일환이는 웃목에 검은 그림자처럼 말없이 돌아 앉아있었다。

『들어왔군요?』

『밥 가져와』

오목이는 부시시일어나 부엌으로 나왔다。 저녁상을 보면서 방안의 인기척에 귀 기울였지만 아무것도 알수 없었다。 밥상을 가져다 놓은후에야 일환이는 돌아 앉았다。 전혀 술기운 없는 얼굴에 놀라 오목이는 가슴이 뒤틀거렸다。

『아기 봤어요?』

일환이의 말없는 숟갈질을 보다못해 오목이가 물었다。

『응、순산이었나?』

일환이가 몹시 부드럽게 그러나 음침하고 무디게 빛나는 눈으로 오목이를 바라다보았다。

『네、아들이에요』

오목이는 자랑스러워하고 싶은걸 억제하면서 원망하는 눈으로 그의 밥숟갈을 좇았다。

『아들?』

그가 못알아들을 말을 따라하듯이 감정없이 뇌까렸다。

『당신 정말 너무 했어요。 어쩜까、말섭일새 없이』 그녀는 화가나고 서러워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김명종한약방

침·보약(탕약과 에스키 약제). 심신 모두 피로·기혈부족·신경과민·노이로제·허리병·근육통·부인병·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빙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 411
☎ : 745—2058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 매혹의 가수 배성 특별출연 ★★
◎7, 8월 여름휴가중 영업시간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Family Product Distributor

도매상과 값을 비교해 보십시요.
저렴한 가격으로 무료 배달($60이상일경우)합니다.

취급품목
Paper towels, 화장지, Detergent, 각종 Soap, 세탁비누, Pampers, 종이봉지(Paper ba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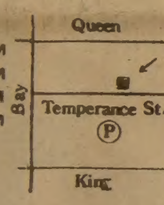
87 Green Lane, Unit 10 Thornhill
주문☎ : 889-9757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월~금 : 4 PM~4 AM /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 : 977-9734

SHANGHAI RESTAURANT

드디어 해삼탕 개시!
메 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 864-9347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짬뽕·짜장면
해장국·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 531-0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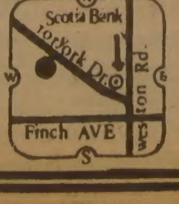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시고차량 완전수리
●페인팅(OVEN BAKED FINISH)
●수리중 차량대여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교포우대

송 대 헌
749—0555(B)
881—4053(R)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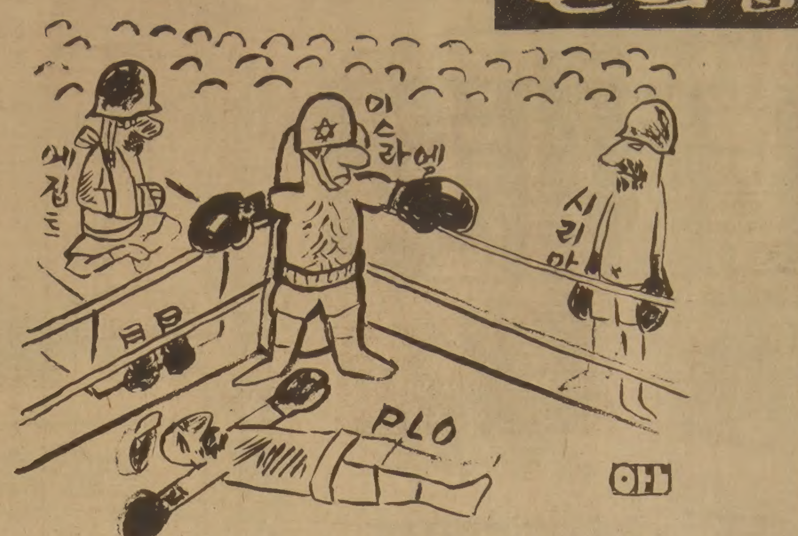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Benjamin Moore PAINTS
블루어 하드웨어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변 의 섭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안의섭 時事 칼럼



첫방어는 TKO! 두번째는 KO! 다음도전자?는 시리아?…

이者들이 이러다가는 우리땅에 「植民地碑」를…

인종문제 풀어보려 어머니 나라 찾아

예일大 짐머만孃의 색다른 「뿌리 찾기」

黃色피부 잊고 싶어해요

예일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는 한국계 여학생이 인종문제에 따른 고민을 풀기 위해 梨花여대에서 주관하는 국제하기대학을 다녀갔다. 자신이 유색인종이라는 사실은 생각하기조차 꺼려한다는 그곳 한국계 학생들의 이야기를 지난 15일 본국에 돌아간 에밀리·한·짐머만양(20)을 통해 들어본다.

『저 자신 지금까진 미국인어라 생각하고 지내왔읍니다. 인종이라든지 혈통에 대해 별반 의문을 느낄 여지가 없었지요. 대학내에서 AASA(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의 모임)가 문제되었을때 비로소 내 자신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됐어요.』

어머니가 한국인이긴 하지만 한국말을 가르쳐준 일도 없고 한국에대해 언급한적도 거의 없기때문에 「자신의 뿌리」에 대해 의식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에밀리양.

『AASA에 대한 아시아계 학생들의 반응도 여러가지였어요. 모임자체에 대해 전혀 무관한 부류가 있는가하면, 아시아계 미국인학생들끼리 단결하는 바로 그것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라하여 이 모임을 부정하는 부류도 있고 그런가하면 모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열심히 활동하는 학생들이 있으며 또 한가지는 그 모임을 부정하지도 못하고 뛰어들지도 못해 어정쩡하게 고민하는 부류가 있죠.』

그래서 에밀리양은 금년봄 인종차별의 문제와 직접 맞닥뜨려 보기위해 예일대학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예일·매거진」에 「AASA와 아시아계라는 자각」이라는 제호의 기사를 기고했다.

이 기사를 통해 자신에게도 큰 고민이 되고있는 인종문제를 해결해 보려했다는 것. 결과는 더 큰 의문만이 쌓인 가운데 뚜렷한 결론을 내릴수 없었다고 한다.

타고난 피부색이 바뀌나요.

『그곳 아시아계 미국인학생들은 대부분 그들끼리 어울리는 것조차 꺼려해요. 즉 자신이 아시아계라는 사실을 잊고 싶어하죠. 그러나 타고난 피부색이 바뀌어지나요. 결국 자신이 아시아계라는 사실을 잊으려 애쓰면서 잊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며 살죠.』

그러면서 한편으론 아시아계보다 구성비율이 더 소수인 푸에르토리코계나 남미계에 대해선 우월감을 느끼려 든다는것. 그 이유는 아시아계가 흑인들이나 푸에르토리코계, 남미계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이라고.

어쨌든 에밀리양은 대학내에서조차 불식하지못하는 고질적인 인종차별문제를 겪으며 한국행을 결심하게 됐다고한다.

『한국땅에 와서 한국과 한국인을 보며 태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어머니도 말은 안하셨지만 저의 한국행에 대해 흐뭇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에밀리양의 어머니 백은진씨(50)는 경기여고를 마치고 6·25가 한창이던 51년 서울대 1년재학중에 도미, 유학한 엘리트. 그곳의 명문 브린머대학에서 학사과정을 마치고 예일대 대학원에 진학, 생화학계통의 석사학위를 받았다. 다시 브린머 대학으로 돌아간 백씨는 그곳에서 신경생물학부문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몇년간 대학교수생활을 하다 이제는 아이버리그에 속하는 펜실배이니아대학내의 존슨재단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있다.

에밀리양의 아버지 조지·렌디스·짐머만씨는 브린머대학의 교수. 에밀리양의 어머니 백은진씨가 아버지 짐머만을 만난것도 브린머대학캠퍼스에서였다.

예일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밟던 백씨가 참고자료를 구하기위해 브린머대학에 드나드는사이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됐다. 만난지 2년후, 만26세의 노처녀 백씨와 만38세의 노총각 짐머만씨는 국제결혼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지금보다 훨씬 좋지않을때 국제결혼을 했다.

에밀리양의 외할아버지는 6·25당시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다 납북됐고 이모부 레이먼드차은 주한 미국대사관의 기술전담감독관으로 있다.

『6월16일부터 7월30일까지의 국제하기대학 기간이 충분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한국어와 한국사를 배우며, 또 한국땅을 걸어다니고 한국사람들을 만나며 느낀것은 많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할순 없어요. 단지 내가 한국인이라는 막연한 유대감, 어쩔수 없는 피의 이끌림을 느꼈다 할까요.』

어번의 체류를 통해 에밀리양은 중대한 결정을 했다. 대학을 마치는 내년여름 다시 한국에 건너와 적어도 1년간은 한국에 머무르겠다는 것. 가능하면 연세대학교내의 외국어학당에 교사로 일하며 더많은 「한국」을 알고싶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계 미국인들은 미국에도, 한국에도 설 땅이 마땅치않아요. 직업을 얻는데에도 많은 제약을 받죠. 특히 혼혈아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신뢰를 해주지않으니까요.』

'하기수련 기간으론 짧아 내년에 또 오겠어요'

4살때 처음 한국에 와보고 이것이 한국을 방문한 두번째라고 한다.

『몇주일 한국에 머문 것으로 충분치않아요. 조금 맛을 본 정도라할까요. 내년에 와선 한국을 아는 문제뿐아니라 인종문제·한미관계등에 대해서까지 더 많은걸 알고 싶어요.』

몇주동안 구체적으로 얻은 것은 갖가지 한국음식을 맛보고 한국친구들을 사귄 것이라고.

『산낙지는 먹어봤어요. 고소하더군요. 비빔밥이나 냉면은 너무 매워서 정신이 없었구요.』

에밀리양은 그간 맛본 한국음식들에 대해 과히 거부감은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

『국제하기학교 스케줄에 따라 전국 명승지순례도 했어요. 경주·설악·제주·해인사등 무척 여러곳을 다녔는데 가장 인상깊었던 곳은 해인사였어요.』

해인사의 고풍스런 모습, 오래된 것이라는 느낌을 한눈에 받게하는 건물과 주변경관은 가슴깊이 짜릿한 감동을 받았다.

더불어 에밀리양은 그 곳 캠퍼스생활에 대해서도 조심스런 분석을 한다.

『이제 미국의 대학 풀은 안정세에 들어섰어요. 60년대의 과격한 반전분위기, 70년대의 프리섹스와 혼돈의 물결, 이런것들이 많이 정리됐다고 볼수 있죠. 물론 일부에는 아직도 방황하는 젊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된 셈이에요.』

에밀리양은 자신에게 흑인 남자친구가 있지만 아직 「키스」도 해보지 않았으니 애인이라고 까진 말할수 없다고.

『나는 그 남자친구와 인종문제에 대해 얘기하며 새로운걸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 단적인 예로 인종문제에 직면할수 없게 된것만 해도 큰 발전이랄수 있으니까요.』

에밀리양은 그간 생각하기조차 꺼려오던 인종문제·혼혈아문제등을 이번 여행을 통해 직면할수 있게된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말했다. <燮>

살림의 지혜

편지와 소포 글자 번지지 않는법

편지와 소포가 비에 젖으면 글자에 물이 번져 읽기 어렵게 된다.

이것을 방지하려면 수신인의 이름을 쓴후 그 위에 양초를 문지른다. 이렇게 하면 비에 젖어도 글자가 지워지지 않는다.

또 포장지 전체에 양초를 칠하면 종이가 튼튼해져 여간해선 찢어지지 않는다. 또 우표를 붙이는 곳에 양초를 칠하면 우표가 끝 떨어져버려 주의해야 한다.

효과적인 개목욕

애완용 개를 목욕시킨후 털을 말리려면 아주 성가시다. 이럴땐 헌 베개 커버에 목만 내놓고 몸을 전부 집어 넣은후 지퍼를 채운다. 그후 헤어드라이어의 끝을 베개 커버 속에 넣고 온도를 약하게해서 스위치를 넣는다. 이렇게하면 베개 커버가 풍선처럼 부풀어 털이 빨리 마를뿐 아니라 털이 날지도 않는다.

녹슨 나사 빼기

나사에 녹이 슬면 드라이버로는 잘 빠지지 않는다. 이럴땐 녹슨 나사에 자동용기름을 한 두방울 떨어뜨린 뒤 다리미나 전기인두의 끝을 나사에 대고 약3분간 가열한다. 열때문에 나사가 팽창하며 기름이 속으로 스며들어 녹슨 부분에 눈에 안보이는 틈이 생기며 간단히 빠진다.

먹다 남은 커리 맑게하기

먹다 남은 커리를 냉장고에서 꺼내 데워 먹을때 흔히 물을 타서 묽게 하지만 이렇게 하면 커리맛이 떨어진다.

이럴땐 물을 사용하지 말고 우유나 요구르트를 조금씩 넣어 휘저으면서 약한 불로 가열한다. 이렇게 조리하면 밑이 눋지도 않고 맛도 변하지 않는다.

스웨터 마디제거

스웨터를 세탁하면 꼽슬마디가 생기게 된다. 꼽슬마디가 있는 것을 그대로 입으면 깔끔치 못한 인상을 주므로 깨끗이 없애고 입는게 좋다.

이 꼽슬마디는 안전면도날로 간단히 제거할수 있다. 스웨터를 잡아당겨 편 다음 안전면도를 45도 각도로 대고 살살 깎는다. 스웨터가 늘어져 있으면 실을 자르게될 염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제일 좋은 방법은 가족에게 입혀놓고 깎는 것이며 이렇게하면 쉽게 꼽슬마디를 떼어낼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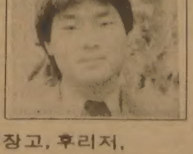
양복 손질

양복을 늘 새것처럼 입으려면 집에 돌아와 옷을 벗을때 상의의 깃·등·소매·가슴과 바지의 접은 곳을 주의 깊게 손질한다. 그리고 2주일에 한번정도 다림질을 한다.

또 한달에 한번정도는 1컵의 물에 암모니아를 몇방울 떨어뜨린 액으로 양복 전체를 살살 닦으면 더욱 완전한 손질이 된다.

◇화 내면…
미소 (성동구 화양동 16-1)

LEON'S 가구점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are House (Show Room)
SINCE 1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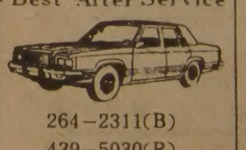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세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FINCH / LEON'S / MCLEVIN / SHEPPARD / MARKHAM / HWY. 401

REALTOR Royal Trust THE SIGN THAT SELLS
Royal Trust
〈집 안 내〉
(1)침실 셋 타운하우즈 $48,500, (2)침실 넷 아파트 2층에 있고 남향받이 조용한 곳 $65,900, (3)침실 둘 지하실 있 아파트, 호수를 내려다 봄, $53,500, 8¾% 이자율, (4)침실 넷 이층독채, 6년되었음, 큼직한 대지 $84,900, 11¼% 이자, $50,000, (5)침실 셋 독채, 방가로 지하실 꾸며졌고, 숲속에 있음, 알맞은 대지에 $60,000, 11¾%모기지, $124,000,(6)침실 다섯을 이층 벽돌집, $149,900, $80,000 싼 이자융 있음, (7)침실 다섯의 완전히 꾸며진 베스먼트 건축업자의 집 $199,900, (8)3,434평방 휘트의 최신형, 2층 주택 1년됐고, 1만5천불 상당의 전기·가구류 포함, 교외 신흥주택지에 있음, $120,000, 15½% 모기지, $265,000,
〈비지네스·상가아파트〉
(9)서양식 레스토랑, 공장지대에 있음, 비지네스 $32,000, 렌트 $500, 이층아파트 있는 건물은 $69,900, (10)코오너에 있는 가게, 주매상 $4,500, 그리고 로타리오 수입, 렌트 $500, 2년+5년 또는 새리스 5년+5년, 이층 아파트 세줄 수 있음, $38,000
(11)코오너 가게와 건물, 주매상 $4,000, 침실 둘 이층집, $109,000+$35,000, 파킹있음,
(12)"The Queensway"에 있는 상가 아파트, 가게는 비어 있고 이층 침실 둘 아파트, 지하실, 바첼러아파트, 변소 3, $81,900,
(13)Mini A Mart 건너편에 아파트가 둘 있는 건물, 가게하든 자리 비어있음, $79,900,
(14)주매상 $8,500~$9,500, 그로서리 가게 2,400, 스퀘어 휘트 $1,250, 렌트 4+4년, $65,000
(15)주매상 $7,500~$8,500, 코오너가게, 월 $900, 3+5+5 리스, $100,000,

로얄 트라스트 곽 석용 752-3111
Mr. SukYong Kwak
Royal Trust Corporation of Canada
1919 Lawrence Ave, East, Scarborough,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왜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밴트럭,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海外걸작만화

『모두가 고와… 몽땅 다 사겠소!』

"They're beautiful I'll take'em all!"

미스터 펀치 許漁

프로棋士들간 접바둑 치수고치기 12番棋

한국棋院 기획…曺薰鉉·徐奉洙팀對 신예棋士팀

프로기사들은 초단이나 9단이나 실력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따라서 모든 공식대국은 호선으로 실시되는 것이 원칙이다。그런데 만일 프로기사들끼리 접바둑을 둔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한국기원에서는 금년 1월부터 색다른 기획을 벌이고 있다。

즉 曺薰鉉9단과 徐奉洙7단등 현재 한국바둑계를 주름잡고있는 두 정상급기사들과 3단이하의 신예기사들간의 치수고치기 12번기이다。

치수고치기 바둑이란 일반 아마추어들이 친구들과 종종 하는 방법으로 대국성적에 따라 치석(미리 놓는돌)이 하나 더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아마추어들은 대개 3연승하면 한점을 더 올라가는것이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이번 12번기에서는 우선 첫판을 신예기사들이 흑을 쥐는 대신 백이 덤을 3집 주고서 시작, 매판의 승부결과에 따라 치수를 조정해나가는 방법을 쓰고 있다。

매달 1국씩 진행되어 현재 제9국째 진행된 결과를 보면 曺·徐두기사의 정상기사팀이 6승3패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으며 치수는 백3호덤에서, 5호덤·7호덤을 거쳐 두점까지 내려갔다。따라서 원래의 치수로 돌아오려면 앞으로 남은 3국에서 신예기사들이 모두 이겨 6승6패 동률을 기록해야 하는데 과연 이결과가 어떻게 될지 많은 애기가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정상기사측에서는 曺9단과 徐7단이 번갈아 나오고 신예기사측에서는 金鍾範2단, 朴相敦초단, 梁宰鎬2단, 崔珪炳초단, 林宣根2단, 李啓勳2단, 姜晩寓3단, 金鶴洙3단, 李柱龍3단등이 출전했다。(정상對신예 12번기 성적은 別表참조)

<정상對 신예 12번기 성적표>

	승리	성적	패배	치수
제1국	조훈현	불계	김종범	先백3집덤
2	박상돈	3집	서봉수	先백5집덤
3	조훈현	불계	양재호	先백3집덤
4	서봉수	불계	최규병	先백5집덤
5	조훈현	불계	임선근	先백7집덤
6	이계훈	불계	서봉수	2점
7	조훈현	4집	강만우	先백7집덤
8	서봉수	불계	김학수	2점
9	이주룡	불계	조훈현	2점

趙治勳、碁聖2국 不計勝
徐奉洙、最高位 패자결승 진출

○…오오따께(大竹英雄)9단과 제7기 碁聖戰 도전5번기를 벌이고 있는 趙治勳名人은 지난 8월25일 벌어진 도전기 제4국에서 집백으로 2백수만에 불계승을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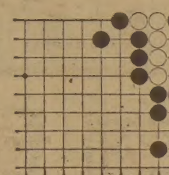
이로써 두기사는 2승2패를 기록, 9월1일에 열리는 제5국에서 최종승부를 가리게 되었다。한편 趙治勳과 오오따께는 9월8일부터 명인타이틀을 놓고 7번승부를 벌일 예정이다。

○…제22기 최고위전 본선토너먼트 패자부활전 제4차전에서 徐奉洙7단이 曺薰鉉4단을 불계로 물리쳐 제1차전에서 패했던것을 설욕하고 패자결승에 진출했다。

한편 승자결승에는 張秀英6단과 尹奇鉉8단이 올라있다。[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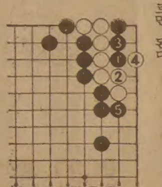
妙手풀이

<문제도> 黑先白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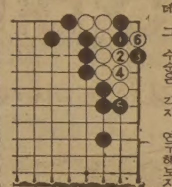


이상한 곳에 흑들이 붙어있다。이것을 어떻게 활용할까。패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해답도>



제1도(정해)=흑1로 붙이는것이 백을 자충으로 모는 수단이다。백은 2로 이을수밖에 없는데 흑3으로 잇고 백4에 흑5로 누르면 된다。



제2도(실패)=흑1로 두어서는 백을 잡을 수 없다。백2로 받을때 흑3으로 단수해봤자 흑5에는 백6으로 먹여쳐 두집이 난다。흑5로 6자리에 이르면 패는 만들수 있는데 그 수순은 각자 연구해보자。

건강 증진 위한 아시아 藥學회의

13개국서 8백명 참가

○…양질의 약품을 개발·공급하여 아시아인의 건강을 증진시키자는 아시아약학회의(FAPA·대회장 閔寬植)가 지난23일부터 1주일간 서울에서 열렸다。

지난 68년에 이어 14년만에 서울에서 개최된 이번 FAPA에는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대만·필리핀·홍콩·파키스탄·인도·태국·인도네시아·호주·이스라엘등 13개회원국 대표8백여명이 참가, 「약사의 전문직능강화」를 주제로한 특별강연과 10개부회별 연구발표및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세계적인 약학교육의 권위자 로런스·C·웨이버박사(美미네소타대학장)와 세계보건기구(WHO)西太지역총장 나까지마·히로시박사가 특별초청되어 「보건의료제도와 약사의 역할」에대해 강연했으며 국내우수의약품·의료기가·인삼제품·분석기기·위생재료등의 특별전시회도 열렸다。

또한 FAPA 명예회장인 조스·B·칼라도박사등 1백여명이 업저버로 참가했던 학술부회·개설약국부회·제약부회등 10개부회에서는 1백33편의 학술논문이 발표됐고 약사의 직능에 관한 9가지의 주제를 놓고 심포지엄도 열렸다。

退溪學 국제회의

하버드大 한국연구서소

○…퇴계학(退溪學)에 관한 6번째 학술대회가 83년 5월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의 하버드대학에서 열릴예정이다。

하버드대학내 페어뱅크센터의 한국연구소가 서울의 퇴계학연구원(이사장 李東俊)의 후원을 받아 개최하는 이 국제학술회의의 주제는 「퇴계학파의 신유학(新儒學)」이다。

학술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한국·미국·일본·네덜란드·스위스·대만·중공등 7개국에서 20여명의 학자가 참가해 그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많은 학자들이 토론에 참가한다。

특히 이 학술대회는 서구에서 개최되는 한국사상가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대회라는데 의의가 크며 중공과 대만의 학자가 자리를 같이하여 퇴계학에관한 토론을 벌이는게 특색이다。

하버드대학의한국학연구소는 『퇴계와 그의 학파의철학및 사상이 한국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일본·중공에까지 널리 깊은 영향을 미쳤기때문에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퇴계의생애와 사상을 연구검토하는것이 매우의의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내년의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해서 「퇴계학의 신유학」에 관해토론할 각국의학자는 다음과같다。

▲장리원(張立文·中共·北京人民大)▲멍아이민(中共·北京大)▲다까하시·스스무(高橋進·일본·筑波大)▲도모에다·류따로(友支龍太郎·일본·廣島大)▲우노·세이이찌(宇野精一·일본·퇴계학연구소)▲마티나 도이출러(스위스·취리히大)▲프리츠·보스(네덜란드·라이덴大)▲찌우허(周何·대만·국립대만사범대학)등 20여명。

珍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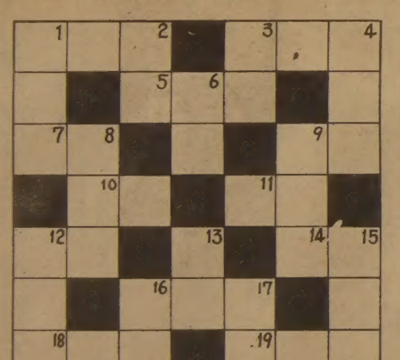
최다 홈런을 때린 팀 (1시즌에 2백21개)

1947년 내셔널리그 뉴욕과 1956년 내셔널리그 신시내티는 2백21개의 홈런을 기록。

가족과 함께 두뇌 체조를

뉴스 낱말 풀이 퀴즈

<제21회 퀴즈>



<힌 트>

■가로
1. 全대통령 마지막 순방지
3. 쇠고기를 삶아서 알맞게 뜯어 양념을 넣고 얼큰하게 끓인 국
5.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7. 이어받음
9. 생식기가 불완전한 이
10. 외국과의 상품거래
11. 아내의 아버지
12. 黑과 白 전문점
14.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
16. 꿩을 소재로한 이조때소설
18. 충신·열사를 제사지내는 사당
19. 산에 오를때 신는 구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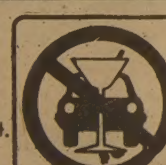
■세로
1. 살·가죽·뼈가 모두 암자색인 약용의 닭
2. 잘못 전해짐
3. 조계종에서 허용안까지 나왔으나…
4. 신체가 정상이 아닌 사람
6. 主君에 반역하는 사람
8. 차·배·비행기를 타고 승객
9. 선사시대 巨石기념물
12. 회충·요충·십이지장충
13. 바위등 습한 곳에 붙어 사는 식물, 분재에도 사용
15. 자연의 경치를 그린 그림
16. 힘이 센 사람, 씨름챔피언
17. 이름에도 전기로써 빛을 내는 등불

<21회 正答은 12면에>

■뉴스낱말풀이 퀴즈正答 <제2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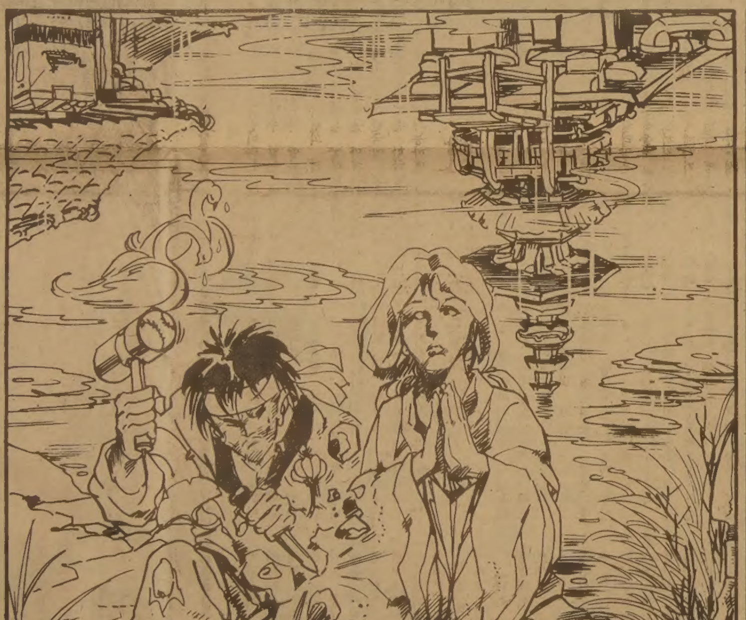
오	타	와	■	육	개	장
골	■	전	역	식	■	애
계	승	■	적	■	고	자
■	무	역	■	장	인	■
기	원	■	이	■	돌	풍
생	■	장	끼	전	■	경
충	렬	사	■	등	산	화

음주운전은 여러분의生命과 財産을 위협 합니다.



「한국 名作」속의 숨은그림찾기

無影塔



옛날 신라의 서울 서라벌의 토함산! 신라 사람들은 토함산을 신령스러운 산으로 모시어 그곳에 불국사를 지었읍니다。신라 경덕왕때 서라벌에서는 불국사를 좀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나라안의 이름난 목수와 석수를 모두 불러들였읍니다。이중에서도 석수일에 가장 뛰어난 아사달이란 백제청년에게는 불국사대웅전 앞 오른쪽에는 다보탑을, 왼쪽에는 석가탑을 세우는 지극히 막중하고 어려운 일이 주어졌읍니다。

아사달에게는 아사녀란 정혼녀가 있었는데 3년이면 돌아온다던 아사달이 5년 6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급기야는 불국사로 아사달을 찾아오기에 이르렀읍니다。하나, 잡념이 생긴다하여 그 누구도 더 더우기 아녀자들의 접근은 허락되지 않았읍니다。<작품중에서>

■숨은 그림

재떨이, 야구공, 양말 한짝, 제비, 담배 한갑, 나무의자, 전화수화기, 식칼, 종이 비행기, 은행잎, 잠자리, 마늘, 압핀。

구성·장태산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 역활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활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뉴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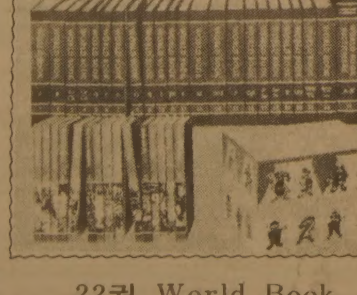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 중 무 휴●

장 소 : 오리엔탈 팔레스 2 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Special Offer
WORLD BOOK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포함



22권 World Book

문의처 : 낮 533-2361 Mrs. 김
밤 242-5774

보십시요

새머리털이 자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머리털의 성장 실험 결과가 우리 전문가들에 의해 85% 이상 성공했읍니다.
당신의 머리털이 빠짐을 막고, 새 머리털의 성장 주기를 자주 해주는 최근의 설비가 임상실험실에 있읍니다. 우리의 훈련된 머리털 전문가가 당신의 머리털과 머리가죽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일차 상담해 주십시요.

걱정을 해결합니다.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 : 537-3104

連載 소설

人間市場

스물세살의 자서전

人間市場

金洪信 作
崔然石 畵

90

지난줄거리

은주 누나는 선생노릇을 했으면서도 자식이란 약점때문에 선생에게 봉투를 바치고 있었다. 또 세계문화협의회한테도 음악콩쿠르, 미술대회, 무용대회란 명목으로 순박한 어린이들이 농락당한 걸 알았다. 2학년 담임 강선생은 그중 가장 악랄한 봉투착취 선생이었다. 홍찬은 강선생을 다잡아 앉히고 엄청난 선생들의 비리를 밝히게 된다. 제발 선생만은…。

거창한 간판을 읽어 내려갔다.

사단법인 세계문화협의회.

나는 속으로 거창한 이름과 거창한 연놈들이 저지르고 있는 비열한 작태를 어디서부터 벗겨내야할까 생각해 보았다. 회장단과 고문이란 직함을 가진 거물인사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손을 댔다가는 뒤집어 쓰는 불행한 사태를 겪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거물급 인사들이 노후대책 때문에 철 모르는 어린이들 돈을 알겨 먹고 사는 것일까?

늙으면 추악해지는게 우리나라 늙은이들의 전통이란 말도 있었다. 깨끗하고 어른답게 늙은 사람도 많지만 무엇인가 좀 했다는 치들은 늙으면 거의 모두가 추악해진다는 것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었다.

무식한 사람은 변절자가 되려고 해도 될게 없지만 유식한 사람들은 곱게 늙기가 어려운지 걸핏하면 변절하기 일쑤였다.

존경받던 지식인들 대부분이 훼절의 대명사가 되어 추악한 웃음을 흘리고 있고 하나님을 앞세워 민중의 일꾼인 것처럼 떠들던 종교인들은 가짜라는게 드러났고 정직한 언론인으로 진리와 정의의 사자처럼 굴던 언론인들은 대개 제 뱃속 채우기에 급급했던 게 드러났다. 학생들 앞에서 제일 꼿꼿한 것처럼 굴던 교수들은 눈이 빨갛게 제꽁무니를 물고 미친개처럼 뱅글뱅글 돌았고 민족의 지도자연하면서 국민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떠벌이던 친구들은 사리사욕의 대명사였다는 걸 국민들이 눈치 채고 말았다.

세계문화협의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제법 넓은 사무실에 집기와 꾸밈새가 이름만큼이나 찬란해 보였다. 직원들도 꽤 많았다.

『박부장님 계세요?』

여직원 앞에 가서 정중하게 물었다.

『어디서 오셨죠?』

『서울서 왔읍니다.』

『누가 서울서 온걸 몰라요?』

『아, 어느 곳에서 나왔냐 이겁니까?』

『어째 오셨어요?』

『여기 취직하러 왔읍니다.』

『우린 직원 안뽑는데요.』

『박부장님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요.』

『그럼 저 안으로 가세요.』

나는 여직원이 가리키는대로 안쪽으로 갔다. 문을 노크하자 굵은 목청의 사내가 들어오라고 했다.

『실례합니다. 박부장님을 찾습니다.』

거만한 몸집의 사내였다. 금테안경을 벗어 책상위에 놓고 소파를 가리켰다. 듬직한 모습이 누가 보아도 큰일을 하는 사람처럼 볼것같았다.

『어디서 오셨소?』

『네, 혹시 염라대왕이란 양반을 아시나 해서 들렀읍니다.』

『뭐라구요?』

잘 못알아 들었는지 아니면 반문하는건지 표정이 얼떨떨한 것같았다.

『염라대왕을 아시나 이겁니다.』

『당신 뭐야?』

『사람입니다. 확실하게 사람입니다. 주민등록도 있고 이름도 있읍니다.』

『어허!』

어이가 없다는 투였다.

『사기쳐서 어린학생 농락하는 애들 있으면 염라대왕이 조기 묶듯 죄다 묶어가지고 오라더군요.』

『이놈이, 여기가 어딘줄 알고…。』

감히…。』

덩치 큰 박부장은 금새라도 내 멱살을 움켜쥘 표정이었다.

『쌈 잘하슈?』

내가 느물거리며 말했다. 갑자기 당하는 일이어서 그런지 몹시 당황하는 기색이었다.

『네, 여기가 어딘줄 알고 왔냐? 이거, 순 공갈배 아냐? 여봐, 자식 끌어내!』

큰소리 나는 기색을 엿보던 사람들이 뛰어 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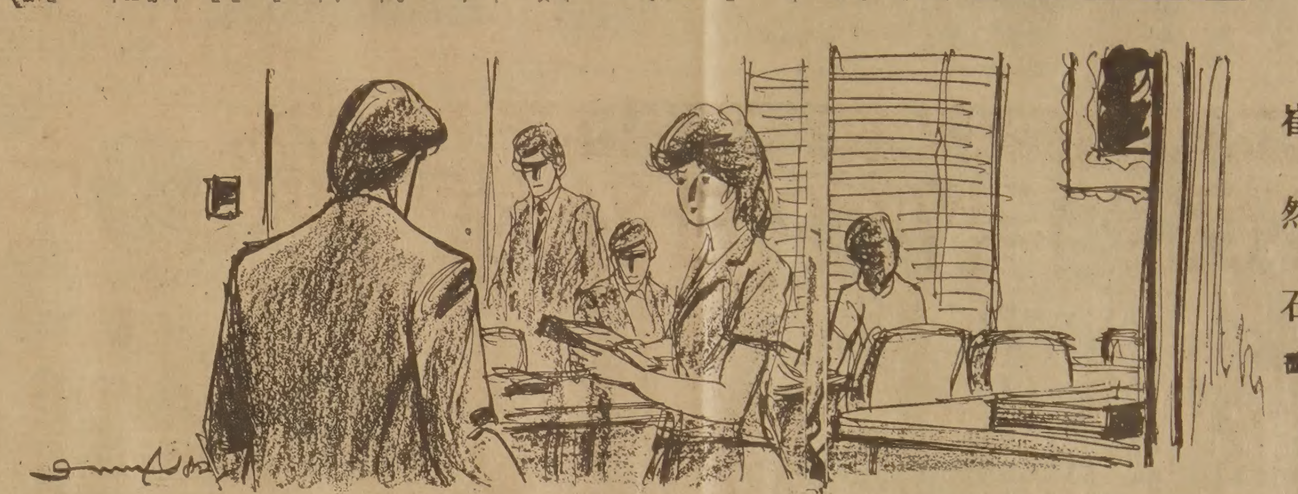
『나, 손대지 마슈. 다쳐가지고 온 사람이라 건들기만 해도 치료비 단단히 물어야 될 거요.』

소파에 버티고 앉아 이렇게 말하자 아무도 선뜻 손대려고 하지 않았다. 아무리 침입자처럼 들어왔어도 손 댔다가는 덤터기 쓴다는 걸 아는 사람들 같았다.

『네, 뭐하는 놈이냐?』

박부장이 목청을 낮춰 이렇게 말했다. 함부로 다루어서 덕 볼게 없다는 걸 눈치 챈 모양이었다.

『염라대왕하고 친한 사람요.』



존경받던 지식인들 대부분이 훼절의 대명사가 되어

『여기가 어딘 줄 아나?』

『아다마다요. 상장 남발하고 선생들 꼬드겨서 이상한 행사나 해서 배때기 불리는 데라는 것 정도는 알조. 겁나게 생긴 자식들 먹고 사느라고 겁나는 짓 하는 데라는 것도 압니다. 한가닥 한다는 늙은것들은 여기 다 있는 모양입디다. 그 늙은것들 상판대기나 보고 자펍니다.』

『어허, 어 자식 봐라. 어이, 경찰에 연락해 버려.』

박부장이 어이가 없는지 이렇게 말했다. 한 사내가 부장석 전화기를 잡으려고 했다.

『이봐, 젊은 친구. 전화 잘못 걸면 손모가지 부러져. 내 얘기 끝나거든 전화를 걸든 내 목을 비틀든 하란 말야.』

『빨리 연락해!』

박부장 목소리가 컸다.

『이봐, 박부장이 내 여잔 건드렸단 말씀야. 제 애인 뺏기고 연놈이 눈깔빼고 그냥 있겠냐? 부르고 싶으면 불러라. 박부장이 빵간 가면 김밥 싸가지고 열나게 면회다니고 싶으면 전화를 빨리 걸라구.』

순간 모든 사람이 멈칫했다. 박부장의 낯빛이 금새 일그러져 보였다.

『이 자식, 이거 정신 없는 놈 아냐? 돈 놈이구만.』

박부장이 재빨리 두뇌를 회전시키고 있는 것 같았다. 웬만큼 나이든 사내에게 그런 식으로 치고 들어가면 오금이 저리지 않은 사내가 없을것이다. 더구나 박부장처럼 돈 긁어 오는 일에 능통한 사내들 것이란 뻔한 것이었다.

『그럼 매들어 보실까?』

나는 수첩을 꺼냈다. 수첩 속엔 전화번호 뿐이었지만 겁을 주기에 충분한 읽기용변이었다.

『이거 돈 내처하고 말이 안되겠군. 돈 놓으러 다니는 놈들이 많다더니 어놈이 그런 놈인 모양이구만. 자네들 나가 있게.』

사람들이 몰려 나갔다. 박부장이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당신은 현명하오. 생긴 것처럼.』

『할말 있으면 해봐라. 얼마가 필요해서 그러는지 좀 알자.』

『묻는 말에 서슴지 말고 대답 좀 해보슈.』

『해봐라.』

『혓바닥 받은 집에 두고 다니슈?』

『말 하래두.』

『그럼 우리 신사적으로 야자타임 갖자. 너같은 자식에게 내 허도 온전하게 놀려대진 싫으니까. 음악콩쿠르, 미술대회, 무용대회 하는데 얼마나 벌었냐? 같이 좀 쓰자. 여거 회장이란 작자가 알고보니 사기꾼이라는데 너도 사기를 전공으로 해서 먹고 사나?』

『이놈 봐라!』

『칵!』

나는 벌떡 일어나 박부장 목을 움켜쥐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바닥으로 내던졌다. 버둥거렸지만 제대로 말을 못했다. 혈을 짚혀서 잘 움직이지도 못했다.

밖으로 걸어나와 서류철이 있는 곳으로 갔다.

『박부장님이 행사서류를 가져오랍니다. 원본 가져오라던데요.』

여자 직원이 서류철을 뒤적거려 한아름을 안고 부장실로 들어갔다.

『어마!』

나는 서류철을 채뜨려 박부장 책상 위에 던졌다. 여직원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갔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이 사기꾼들아. 무얼 못해 처먹어서 어린 학생들한테 사기 쳐서 상장으로 돈을 만들어 처먹었냐? 이게 그 서류다. 증거물이 내 손에 있는 이상 너희들 맘대로 안될 거다. 그래도 용감한 놈 있으면 경찰서에 전화를 해 봐라.』

사람들이 주춤거리고 있었다.

『5초 내로 이 방에서 안나가는 놈은 박부장처럼 거품을 뿜게 하겠다.』

몰려올 때처럼 우르르 몰려 나갔다. 제놈들도 상장과 현금을 맞바꾸는게 지나치다는 것과 세상에 알려지면 큰일이라는 걸 아는것 같았다.

『이봐, 할말 있으면 맘 놓고 해봐라. 이 장부는 내가 가져가겠다.』

『여보세요 그건…。』

『안된다는 거냐?』

『제발 이러지 말고 말로 해주시다.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보시오.』

『너, 말한번 잘했다. 사내끼리 터놓고 말 좀 하자. 그래 선량한 학생들한테 몇만원씩 참가비 받아서 상장을 몇만장씩 만들어 나누어줘 세 배때기 채우는 게 잘난 놈들 할 짓이냐?』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자라나는 아동들을 격려하여 세계적인 문화를 형성시키자는 목적 아래…。』

더 말할 틈을 주지 않았다. 박부장은 댓자로 뻗어 누웠다.

『사내끼리 사내답게 말할때 사기치면 그 꼴이 된다. 너희 회장이란 작자는 뭐하는 친구냐?』

『사회사업도 하시고 한때 정치도 하셨읍니다.』

『그럴줄 알았다. 그러면 고문들 명단에 정치가, 학자, 교수, 성직자, 의사, 예술가, 재벌들이 끼여있을만하겠다. 그 치들한테 얼마씩 주냐?』

『드리는거 없읍니다. 정말입니다.』

『한번 행사 치르면 얼마나 남나?』

『……。』

박부장은 또한번 나가 떨어졌다.

『그 장부에 다 있읍니다.』

다급했는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장부를 차근차근 펴보았다. 상장과 메달 만드는 일에 돈을 쓴게 별로 없었다. 교사들에게 협조비로 준 액수가 보통 많은게 아니었다. 끔찍스러운것은 참가학생 몇천명 전원에게 금상, 은상, 동상 그리고 특별상과 대상, 장려상과 장원등의 상장을 다 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건 상장 장사지 세계문화가 어쩌구 하는 데가 아니잖나?』

박부장이 고갤 숙였다.

바깥에서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암만한 얼굴을 자진 노신사가 들어왔다.

『당신이 박창수 영감요?』

이 땅의 어린이들까지 사기쳐먹고 네 배짱 끝좀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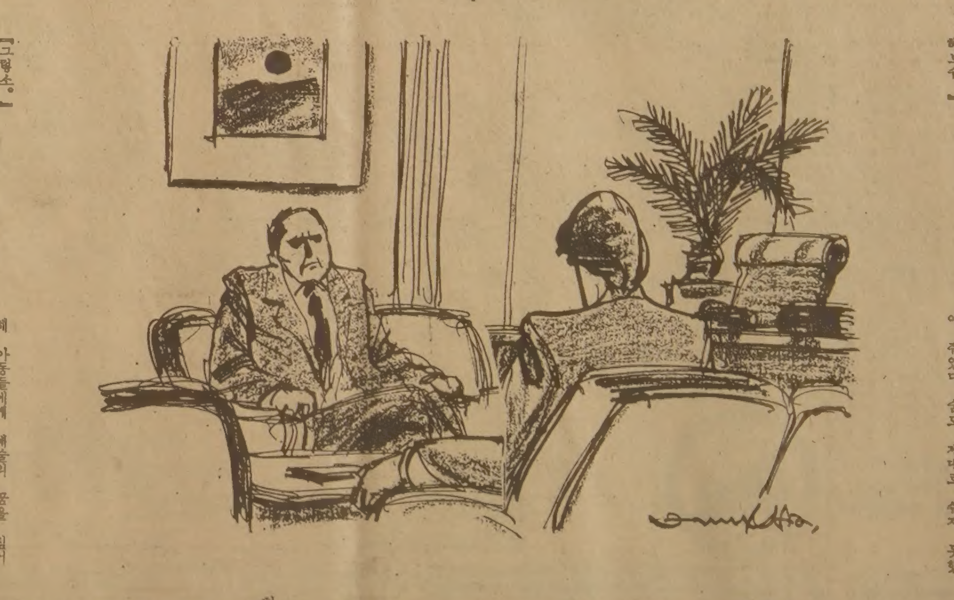
『그렇소.』

역시 거물다웠다. 의젓하게 소파에 기대 앉았다. 어깨가 떡 벌어진 젊은 애가 박창수 회장 뒤에 버티고 섰다. 박부장은 생기를 찾은 듯 꿈틀거렸다.

『무슨 일이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행패를 부리는 거요? 나하고 애길 해봅시다. 나 박창수란 사람이오.』

『압니다. 정치도 했고 사회사업도 했고 지금 사기집단 왕초노릇한다는 것도.』

『젊은 사람이 너무 막말하누만. 이봐요, 난 평생교육에 일생을 바친 늙은이요. 이 땅의 미래를 위해 아동들에게 예술의 꿈을 심어 주고…。』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박창수영감의 멱살을 잡았다. 젊은 사내가 주먹을 날렸다. 나는 재빨리 몸을 피해 그 주먹에 박창수를 내밀었다. 박창수가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다. 안경이 박살났다.

『왕초 때리는 졸개야. 이리와서 두어대만 맞아라.』

나는 젊은 사내를 비틀어 내던졌다. 박부장 옆에 고꾸라져 누웠다.

『박창수 영감 들으슈. 당신 부하가 당신 친 거지 나는 손하나 대본 적이 없소. 이제 실토를 하시지 그러슈. 정치나 했다고 거들먹거리며 사회 저명인사 이름을 빌어 이런 고급사기집단 왕초 노릇하는 재미가 어떤지 말요. 애들한테 몇만원씩 울거내서 두달에 한번씩 각종 대회 열어 돈 챙기는게 평생교육이고 이 땅의 미래란 말요?』

『이봐, 이봐 내 얘기 좀 듣고.』

박창수가 고통을 이겨내려고 안간힘으로 나를 잡았다.

『제발 곱게 늙으슈. 뭐 좀 안다는 늙은이들이 이 따위로 늙으니까 젊은애들이 본받잖소. 차라리 옛날 하던 식으로 큰사기나 쳐서 떼부자 되는게 낫잖소. 당신 정치한답시고, 사회사업한답시고 배 채운거야 천하가 아는 사실이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하잖소.』

『이봐, 젊은이. 그건 그런게 아니라 좀 더 나은 평생교육장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기획하고 있는걸 들으면 알 걸세만.』

『사기꾼 왕초 노릇하려면 변명이나 말재간이 일품일 수밖에 없다는 것쯤은 나도 압니다. 고문이라는 자식들이 거물들로만 구성됐읍디다. 후원회 인사도 쩌렁쩌렁한 치들입디다. 다 폭로해서 어떤 꼬라지들인가 보여주겠소.』

『젊은이, 그분들은 아무 죄도 없소. 내가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들을 그냥 명단에 넣어 놓은 거요. 왜 거짓말을 하겠소.』

박창수가 겨우 소파에 기대 앉아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최소한 승낙은 했을거 아니오?』

『내 얼굴 봐서 그러라고 한 것뿐요.』

『당신, 정치할 때도 국민한테 그런 술수로 사기치더니 죽을 때까지 사기치고 살거요? 배우는 애들데리고 장난 좀 하지 마슈. 애들 먹는 과자나 얼음물 얼린 것 따위 애들 장난감, 애들 옷, 애들 좋아하는 것 가지고 장난질 치는 새끼들은 지옥에 가도 똥통 속에 거꾸로 박힐 거요. 당신은 한때 이 나라 지도자였소. 오늘은 비겁한 상장 장사꾼 두목으로 전락했소. 왜놈들 붙어먹다 살아남은 놈들치고 국민한테 사기 안치는 놈이 없소. 이 더럽고 치사한 놈은 것아.』

나는 사정없이 갈고 앉아 박창수를 두드려 팼다.

『너같은 민족배반자들이 여태까지 민족지도자니 대학자니 너울 쓰고 잘 처먹으며 살았지. 진짜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배가 고파도 너희들은 가면 쓰고 폼 나게 살았지. 어디 한번 이 땅의 어린이들까지 사기쳐 먹고 네 배짱의 끝좀 보자.』

나는 있는대로 폭언을 퍼부었다. 박창수가 미운 생각대로라면 치도곤을 내고 싶었지만 늙은이를 차마두드려 팰수 없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박창수가 나를 조용히 응시했다.

『내 부탁 하나 들어주겠소?』

『해봐라.』

『타협을 합시다. 낼 모레면 죽을 늙은이오. 맘 편히 죽게나 해주시오. 억지는 쓰지 않겠소.』

박창수 표정은 퍽 지쳐 보였다. 진지함도 엿보이는 것 같았다.

『나는 친일파 배신자들처럼 타협을 하는 사내새끼는 아니다. 너희들은 체면과 염치를 위해선 민족도 팔아치운 놈들이다. 그동안 그만큼 속았으면 됐지 더 속아달란 말이냐?』

나는 이왕 시작한 길에 지금도 살아서 떵떵거리며 사는 문화단체 회장하는 놈을 여우년 욕도 했고 지도급 인사라고 얼굴 내미는 늙은 녹대들 이름을 들먹이며 박창수의 친일행적을 낱낱이 털어놓았다.

『할말 없소.』

『그럼 경찰에 이 서류를 몽땅 넘기겠다.』

『그래도 할말이 없소. 마지막으로 내 말 한마디 합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창수가 허리를 꼿꼿하게 세웠다.

『이 협의회를 해체하겠소.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재산 전부를 장학기금으로 내놓겠소. 나는 그냥 조용히 묻혀서 살겠소. 젊은이 맘대로 하시오.』

나는 잠깐 박창수와 시선을 떼어 놓았다. 마음 속에 갈등이 들어차고 있었다. 친일파를 단죄하지 않아서 생긴 비정한 사회상을 기억하는 마음과 늙은이를 편히 죽게 해줄 마음의 투쟁이었다.

나는 박창수의 손을 잡았다. 박창수가 일어나 내 손을 잡았다.

『좋습니다. 그냥 가겠읍니다. 영감님을 믿겠읍니다.』

뭐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문을 열고 뛰어나왔다. 늙은이에게 구차한 소리를 하게 내버려두고 싶지 않았다.

하나님.

저 정도만이라도 이땅의 인물들이 소갈머리가 넓었으면 좋겠읍니다.

이튿날 조간신문을 펼쳐들고 나는 가슴이 확 풀리는 심정이었다.

박창수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많은 액수의 재산을 여러 대학에 장학기금으로 헌납했다. 세계문화협의회를 해체했다는 기사는 없었지만 그럴만한 배짱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것같았다. 과거의 우리선조들은 비열하지 않았다. 정정당당한 늙은이들이었다. 왜놈들이 들어온 뒤부터 이땅의 인물들이 변질된것이었다.

전화를 걸었다.

『영감님, 고맙습니다.』

『젊은이, 누군지 이름도 물어보지 못했소만 잊지 않겠소. 고맙소.』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전화를 끊고 돌아앉았다. 가슴이 후련했다. 마구 소리치고 싶었다.

〈다음호에 계속〉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민 병 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DON'T GET ME WRONG.

「파티석상에서의 사교영어가 문제가 됩니다」 어느 외교관 생활을 처음시작하는 분의 말이다. 그도그럴것이 대중 앞에서 하는 연설문은 미리 준비를 해두었다가 읽으면 되지만 막상 파티석상 같은 곳에서 cocktail을 들면서 대화를 나눌때는 너무 격식만 차린 딱딱한 말보다는 사교영어, 생활영어가 필요하고 바로 이런 자리에서 외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활영어란 글자그대로 생활주위에서 피부로 와 닿는 언어를 뜻하는 것으로 미국인들이 쓰는 말, 배워서 그네들과 감정이 통하는말 바로 이것이다.

Don't get me wrong. 많이 쓰이는 쉬운 말이지만 처음들어 보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동사 get은 이해하다(understand) 는 의미로서 Did you get it? 하면 「알아들었는가?」 란 뜻이고 get(a person) wrong은 「누구를 오해하다」는 말이된다.

I guess you don't like Bob very much. (바압을 좋아하지 않는것 같은데)라는말에 「오해하지마라. 그는 좋은 녀석이지만 게으르지」 라고한다면 Don't get me wrong. He's a nice guy but he's lazy. 라고 하면된다. Don't misunderstand me. 는 Don't get me wrong. 과 같은 말이다.

A : Did you hear about the rioters in the Cuban refugee camp?
B : Yes, I think we should send them back to Cuba.
A : Don't you feel sorry for them?
B : Don't get me wrong. I believe in helping refugees, but not rioters.
A : I guess many people agree with you.
B : Yes, President Reagan is one of them.
A : 쿠바난민이 캠프에서 폭동이있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B : 네, 그들을 쿠바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 : 그들에게 동정이가지않으세요?
B : 오해하지 마십시오. 난민을 돕는것은 좋다고생각합니다만 폭도들은 싫습니다.
A : 아마 당신에게 동감을 할 사람이 많을거예요.
B : 네, 레이건대통령도 그중 하나입니다.
A : You look tired, Tom.
B : I am tired. I had a rough day at work.
A : Why don't you quit your job?
B : Oh, I don't want to do that.
A : Why not? You're always tired whenever I see you.
B : Don't get me wrong. I like my job.
A : 피곤해 보이는데요, 탐.
B : 피곤해요. 일하기 힘든 하루였어요.
A : 그직업을 그만두지 그래요.
B : 아, 그렇게 하고 싶지는않아요.
A : 왜요? 볼때마다 늘 피로해 보이는데요.
B : 오해하지마십시오. 저는 제직업이 좋습니다.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312) 966-4050
책: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頂上의 신문 한국일보

신문에 안난 現場

南山 야외 음악당 일대의 산책객들을 유인、길가에서 하찮게 벌여온 도박판의 「고리」(개장료)가 지난 2년간 무려 1억7천여만원이나 됐다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3형제 도박사가 낀 일당이 경찰에 붙잡힘으로써 밝혀진 이같은 사실은、도박꾼 손에 쉽게 걸려드는 시민들의 무절제를 드러내 보인것이기도 해서 수사경찰관마저 머리가 띵한 모양이다。이번주 「기자수첩」은 사이비 승려와 가짜 보살 일당이 부적 2천1백여만원어치를 팔아먹은 실화와、대졸학력의 중·고교 교감의 진짜 학력이 국교 4년으로 들통난 가짜 교감 소동등으로 뒷맛이 몹시 쓰다。

산책객 꾀어 길가 도박판 벌여
개장료만 1억7천여만원 삼킨 3형제 낀 도박단

■결혼빙자 돈훔쳐

▲서울성동경찰서는 21일 동거여인에게 결혼하자고 속여 부모에게 인사하러 가는 체하며 열차안에서 핸드백을 훔쳐 달아난 崔辛萬씨(25·전과7범)를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崔씨는 지난 6월초부터 용산역앞에서 만난 李모양(20·서울 성동구옥수동)과 결혼을 약속、동거해오다 지난 7일 李양에게 결혼승낙을 얻으러가자며 李양의 고향인 全南 麗州로 내려가는 열차안에서 李양이 졸고있는 사이 1백20만원이 든 李양의 핸드백을 훔쳐 달아났다는것。

李양은 崔씨를 철석같이 믿고 3년간 여공생활로 모은 전세방값을 빼내 결혼준비를 위해 가던중이었는데 崔씨는 20일밤 서울의 모 나이트클럽에서 훔친돈으로 술을 마시고있다 경찰에 붙잡혔다。

契깨려고 허위강도신고한 女契主

▲서울노량진경찰서는 19일 곗돈을 생활비로 보태쓰고 강도당했다고 허위신고한 金貞點씨(여·44·서울 동작구상도1동93의5)를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金부인은 지난1월부터 5백만원짜리 계를 조직、계주가 돼 계를 운영해 오다 이달의 곗돈 86만원이 부족하자 계를 탈 목적으로 『16일 낮12시께 칼을 든 20대 강도에게 5백만원을 빼앗겼다』고 경찰에 허위신고。

金부인은 경찰에서 사건당시 돈을 놓아둔 장소와 범인의 인상착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다 들통이 났다고。

▲서울남대문경찰서는 19일 李大熙씨(27·전과8범·서울용산구도동2가100의7)와 仁熙씨(25·전과1범)등 형제와 鄭相憲씨(25·주거부정)등 3명을 상습도박및 도박장개장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이들 형제의 맏형 京熙씨(36)와 權喜男씨(34)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80년8월부터 지금까지 남산야외음악당부근에서 주로 산책객들을 상대로 이른바 상·하도박과 도리짓고땡·윷놀이등 도박을 벌여 판돈10만원당 고리란 명목으로 1회에 1만원씩 하루50여회 50만원씩 2년동안 모두 1억7천여만원을 뜯어왔다는 것이다。

또 달아난 權씨등은 李씨의 3형제로 부터 하루 1~2만원씩 받고 산책객들을 도박판으로 끌어들인 혐의다。

■합판 창고 億臺도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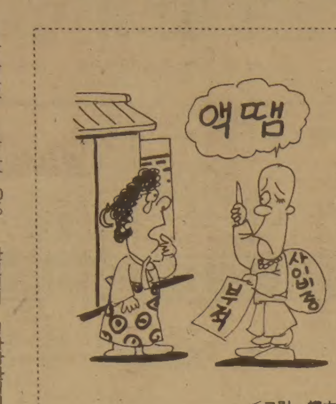
▲서울남부경찰서는 20일

사건記者 수첩

姜龍雲씨(36·전과3범·인천 동구 화수동137)、金德培씨(28·전과5범·인천 중구 전동)등 2명을 특수절도혐의로、曺福秀씨(27·경기 시흥군 군자면 원곡리838)등 3명을 장물취득혐의로 각각 구속。

경찰에 따르면 姜·金씨등 2명은 지난13일 밤11시께 서울 관악구신림동 영남합판상사 창고 출입문을 절단기로 자르고 들어가 합판6백40장(싯가8백만원)을 미리 대기시켜놓은 경기7마5506호 타이탄트럭에 싣고 달아난것을 비롯、지난4월부터 지금까지 17회에 걸쳐 모두 1억여원의 합판을 훔쳐왔다는 것이다。

또 曺씨등은 姜씨등이 훔쳐온 합판을 싯가보다 30%가량씩 싸게 사들여 曺씨가 경영하는 경기 화성군 반월면의 성창합판대리점등을 통해 팔아왔다는 것이다。



<그림·權大雄>

가짜중·보살들 엉터리 부적 2천1백여만원어치 팔아

▲서울남대문경찰서는 21일 裵建熙씨(50·서울영등포구영등포동618)등 사이비 승려 4명과 韓수顧씨(여·56·서울성북구종암1동81의7)등 가짜 보살 5명을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6월15일 상오10시께 서울 마포구성산동 산32의12 金東文씨(53)집에 들어가 미륵암에서 나온 포교사라고 명함을 내보인뒤 『지나가다 보니 이 집에 액운이 끼여있는데 아들 3형제 모두에게 낀 액운을 예방하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것』이라며 12만원을 받고 부적을 판것을 비롯、지난80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4백22회에 걸쳐 2천1백여만원을 가로챘다는것。

Y사·B사등 말사에서 1장에 2만5천~3만5천원씩의 금품을 주고 승려증을 발급받은 裵씨등 사이비 승려 4명과 가짜 보살들은 서로짜고 가정집을 방문、주부에게 가족사항을 물어본뒤 액운이 끼여있으니 액땜을 해야 한다며 겁을 주고 엉터리 부적을 1장에 3만~12만원씩 받고 팔아 왔다。

거지파一黨 신랑신부만골라 복채로 4~5만원씩 뜯어

▲서울영등포경찰서는 23일 예식장앞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나오는 신혼부부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온 李후男씨(40·무직·영등포구당산동2가30)등 일명 「거지파」 일당 7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李씨등은 지난4월부터 영등포구영등포동4가66 중앙예식장앞에서 자해행위를 한뒤 결혼식을 마치고 나오는 신랑·신부에게 접근、『경사스러운날이니 복채를 내놓으라』고 위협、돈을 뜯어 내는 숫법으로 지금까지 1쌍당 4~5만원씩 모두 60여차례에 걸쳐 3백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부동산업자 폭력

▲서울강동경찰서는 21일 金泰俊씨(29·서울강남구대치동 은마상가 독일부동산직원)、郭상현씨(31·〃)등 2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상가안에서 부동산소개업을 하는 양한국씨(39·로마부동산직원·가락아파트10동509호)가 아파트 신규분양사무실등을 돌아다니며 매입해온 주택부금통장을 독일부동산측에는 하나도 건네주지 않고 다른 부동산소개업소 직원들과만 거래를 하는데 불만을 품고 폭행을 한것。

지난 7월26일새벽3시께 양씨를 찾아간 이들은 『잠깐보자』며 강동구석촌호수가로 양씨를 유인、무릎을 꿇게하고 몽둥이와 주먹등으로 마구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등 전치 1개월을 요하는 중상을 입혔다는것이다。

「신문에 안난 現場」

점치러 온 손님에게 "돌가루를 간암 특효약"이라 팔고

■선배몰라본다後輩죽여

▲22일하오2시께 서울마포구합정동352의2 제2한강교 밑에서 李喆俊군(16·서울 마포구 망원동411의14)이 같은동네 史모군(16)등 4명으로부터 주먹으로 마구맞고 그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史모군등 4명은 이날 동네후배인 李군등 6명에게 『후배면 선배에게 신고를 해야한다』며 제2한강교밑으로 데리고가 이들을 교각옆에 세워놓고 4명이 돌아가며 李군등의 머리와 가슴등을 주먹으로 마구 때렸는데 李군이 신음소리를 내며 쓰러지더니 숨졌다고 한다。

▲서울노량진경찰서는 지난 18일 무허가술집에서 대낮부터 시끄럽게 음악을 틀어놓고 어울려 춤을 춘 정순례씨(42·여·강서구신정동1066의27)등 30~40대 남녀50명을 무더기로 즉심에 넘겼다。

이들은 18일 하오4시께 서울영등포구신길2동110술집 곰살롱(주인 박정서·62)에서 춤을 추고있다가 인근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서울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지난5월10일부터 7월30일까지 82일동안 시내 일원에서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2백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고 19일 발표。

서울시는 이중 1백5대에 대해서는 정비지시명령을、63대는 3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을 내렸으며、위반정도가 비교적 심했던 32대는 고발조치했다。

위반차량을 차종별로 보면 택시와 승용차가 1백18대、관광버스 82대였는데 휘발유와 LP가스를 사용하는 택시와 승용차의 경우 일산화탄소를、경유를 쓰는 관광버스는 매연을 대상으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단속결과 서울시내 28개관광버스회사소속 차량들의 상당수가 매연차량으로 적발됐는데 회사별로는 대양관광이 8대로 가장많고 다음이 태평양교통、무궁화관광、동성관광으로 각 6대、현대관광 5대、동양고속관광、뉴월드관광、신라관광 각4대등이었다。

同名異人 신원 빈 國校4년 中退者 어엿이 교감노릇

▲忠北堤川경찰서는 지난19일 동명이인의 신원을 자기것처럼 속여 국민학교4년 중퇴의 학력밖에 없으면서 교직생활을 해온 慶北奉化郡 B중고등학교 교감 池永培씨(42·경북영천시 가흥1동235의23)를 사문서 위조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池씨는 지난74년 7월30일께 慶北迎日郡義昌邑 H중학교에서 무자격 국어교사로 근무하던중 이학교 도서실에서 서울M대학 졸업자 명부를 열람하다 자기 이름과 똑같은 堤川중학교 국어교사 池永培씨(42·제천시중앙로2가80의21)의 명단을 발견、池교사인양 속여 서울시교육위원회로부터 교사자격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그동안 교직에 종사해 왔다는것。

당시 池씨는 서울시교위를 찾아가 교사자격증을 분실했다고 허위로 말하고 동명인인 池교사의 중등학교 2급정교사 국어과 자격증을 발급받아 교직생활을 계속해 왔다。

池씨는 또 이 자격증을 근거로 지난78년10월23일 慶北迎日郡烏川面 X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경북도교위로부터 현재의 奉化郡 B중고교 교감으로 부임했는데、당시 민간인 신원진술서를 비롯한 구비서류 전부를 다른 池교사의 본적 생년월일、주민등록 번호등으로 꾸며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忠北 의료공단이 의료보험서류 정리에 따른 동명이인관계를 확인키위해 컴퓨터조사작업을 하던중 두사람의 호적등 신원일체가 동일한 점을 발견해 池교사에게 연락、池교사가 慶北도교위의 확인을 거쳐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밝혀졌다。

수사결과 구속된 池씨는 지난1956년 京畿Y국교4년중퇴의 학력만 가지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인에욕한 日人때려

▲서울중부경찰서는 24일 술집에서 일본인을 의자로 때려 상처를 입힌 朴起鏞씨(26·대전시 중구문화동549)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

朴씨는 21일밤11시께 서울중구명동주점 「명동의 집」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중 옆자리의 일본인 사업가 가또오·후꾸오씨(50)가 같이 온 한국인을 보고 「당신은 돼지」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가또오씨의 이마를 의자로 내리쳐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혔다는것。

朴씨는 『요즘같은 때에 일본인이 우리나라에서 활개치고 다니는것도 눈꼴 사나운데 한국인에게 욕을하는 것을 보고 울분을 참을수 없었다』고 나의 농담에 흥분한 경위를 설명。

▲서울서대문경찰서는 24일 점치러 오는 손님들에게 돌가루를 간암 특효약이라고 속여 팔아온 점장이 朴玉子씨(54·여·경기가평읍승안리산1)와、朴씨의 심부름꾼 金章鉉씨(69·서울성북구동소문동6가230)를 사기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朴씨는 지난4월부터 서울중구중림동66 입창여인숙205호실에서 점술을 쳐오면서 지난14일 점을 치러온 배점숙씨(43·경기부천시상동18)에게 돌가루를 간암의 특효약이라고 속여 2g을 2만원에 판 혐의다。

마을도로 통행료 받아먹다 쇠고랑찬 통장

▲마을도로를 이용하려면 통장에게 통행료를 내야한다고 주민들로 부터 돈을 받은 통장이 쇠고랑을 찼다。

부산남부경찰서는 24일 부산시남구감만동 22통장 沈회섭씨(42)를 사기등 혐의로 구속했는데、沈씨는 지난6월20일 자기동네에 거주하는 주민 조용욱씨(47)가 집을 지으면서 새마을사업으로 포장해놓은 마을길로 골재를 운반하려하자 통행료를 내야한다며 5만원을 받은것을 비롯、이곳에 아파트를 짓는 최문희씨(33)에게도 도로포장비조로 20만원을 사취했다는 것。통장 沈씨는 이 도로가 시비로 준공됐음에도 주민부담이 있는 것처럼 속여왔다고 한다。

■여자기숙사 몰래들어가

▲江原鐵原경찰서는 24일 철원군갈말읍강포리 이주영씨(22)를 경범죄처벌위반혐의로 즉심에 넘겨 3일간의 구류 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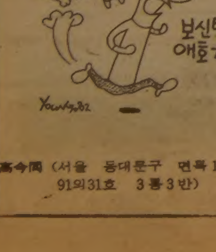
李씨는 지난21일 새벽2시께 같은 마을에 있는 D산업사 여자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잠자고 있던 최모양(20)등 3명의 여공들의 몸을 더듬었다는것。

李씨는 경찰에서 『술한잔하고보니 외로운 마음이 들어 나도 모르게 여자기숙사에 들어갔었다』면서 『여자 몸좀 더듬었다고 경찰신세를 질줄은 몰랐다』며 긴 한숨。

〈정리 姜升熙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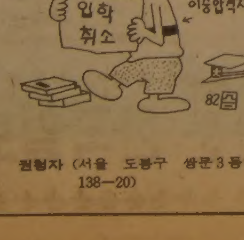
한국일보의 광고효과를 말해주는 한국 안내광고란

<살려 주…>



高今闊(서울 동대문구 면목1동 91의31호 3통3반)

<눈치 보고 얻은 거라고는>



권형자(서울 도봉구 쌍문3동 138—20)

<가을이 오는 소리①>

"고추잠자리도 부끄러운가봐요! 빨개진걸 보니까요."

<김용화>

지금 웃는중 落書

<습득하신 분 연락요망>
입춘 귀 하나밖에 없는 애인을 잃어 버렸습니다。
박훈(미국 뉴욕에서)

★<정말이노 사람 이노 죽겠소다>
日本人 출입금지
—화장실—
피카소화소(성북구 화양동 167의1 민속화실)

<승차 거부해도>
처벌은 커녕 칭찬만 듣는다。
—일본인승차거부 택시운전사—
선화공주(울산시학성동377의17)

<아휴 죽을 뻔했다>
스님에 육식허용한다는 제안에
—절간의 똥개—
이작재(전국나서회)

<드디어 곳곳서 청혼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항상 허름한 작업복에 볼품없는 나에게도…。
—구직란속의 지하철공사장인부—
박경환(4942·N·Monticello Ave Chicago ILL 60625 U.S.A.)

<올 여름을 무사히 넘긴것은>

<일본인은…>
왜곡지향주의자다。
맹물(한국나서회)

<두고 봐라>
歪曲 좋아하는 일본사람들 언젠가는 후회하는 날 있을테니…
가을치(한국나서회)

<웨딩드레스의 신비>
처음 입는 여자는 그토록 어울리고 아름다울수가 없지만 두번째 입는 여자에게는 더 없이 볼품 없고 초라하게 보일뿐이다。
류경철(무전여행전문가)

<밥손님이 경찰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
불면증환자
김정철(土月文友會·부산해운대구우동427의1)

<대화>
남…자기 발가락은 아주 개성있어。
여…어머 정말이에요。
남…그렇다니까。발톱에 바른 매니큐어가 항상 반쯤 벗겨져 있거든。
여…
이재(전국나서회·1021 S. Kingsley DR#6 L.A.C A90006 U.S.A.)

<시력 좋군요>
자장면속에 든 주방장의 눈썹을 찾아낸 사람。
이일재(미국 LA에서)

<불만한 풍경>
일본인 출입금지라고 써붙인 공중변소앞。
하혜규(충무시명정동 주공아파트 8동 406호)

讀者 페이지

우리 주인은 내가 임포던스라는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견공— 태은

■投稿환영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 유화·서양화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den Craft
◉특수인쇄(Silk Screen Printing)
◉ Engraving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집수리·신건축"
빈가게 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Steel Shelving, Painting, Tile, Concrete,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전화 : 669-5784 (Mr. 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전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조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 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광고문의 ☎ : 533-2361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서 울 식 품 (동부)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실내장식

"Fine Design"
설계및 허가, 시공
전화 : 622-5328 (공장) 676-1173 조 덕 남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신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우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광 고 접 수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741-6099(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운송

나 이 운 수
서울 교민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총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전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김 용 환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전학

광고문의
☎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완인태권도 完仁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섬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신 준본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품 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R)531-4165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명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요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신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안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531-4165(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합.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Downtown에 사시는 분으로서 하루 3~4시간씩 집안일 도와 주실 여자분.(Bloor + Jane지역)
전화 : 769-4366 오후6시 이후 김.

Part Time Helper 구함.
(서부지역) 전화 : 769-5956

유경험자 여자 캐쉬어 구함.
1220 Davenport Rd. (OakWood Ave×Davenport)
전화 : 656-3020

가게 Part Time 남자 Helper 구함.
스카브로 지역. 전화 : 267-0847

씨알학교 운전수 구함.
동쪽 버스 운전하실분 구함.
전화 : 960-0074

점심시간 Part Time 웨이트레스 구함.
오전11시30-~오후2시30분 (3시간)
전화 : 757-6334

Shoe Maker(Finch & MacCowan Mall)
Helper 구함. (Full Time)
전화 : 291-8367(B)

도나스숍에서 밤에만 일하실 여자분 구함.
(다운타운지역) 밤11시-아침7시
풀타임 또는 파타임. 398 Church St.

웨이트레스 구함.
전화 : 532-2727

Part Time 웨이트레스 구함.
Mon.-Fri. 11:00a.m.-3:00p.m.
전화 : 368-2470 (after 2:00 p.m.)

주말 유경험자 Helper 구함
(남·녀 관계 없음) 낮12시~밤11시
1114 Yonge St.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 인 회	755-9288
노 년 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호남향우회	651-8835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K. A. L.	862-8250
조흥은행	363-3448

크레딧·카드 를 使用 하세요.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개인지도

PIANO, THEORY & SINGING LESSONS
AFTER 5 p.m. 2284 DUFFERIN ST.
PHONE 787-0007 PROFESSOR MORFEA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

매매

Private Sale(Bungalow Type)
타주 이주관계로 가옥 급매.
4 Bed Rm. 2개의 차고(Double Garage)
Asking : $110,000
(Morning side & Lawrence 지역)
전화 : 281-0963 (5:00 p.m 연락바람)

새로운 Mall속에 Hamberger & Coffee
20년의 장기 Lease에 Rent : $1,060.
현주며상 : $2,500. 앞으로 6개월내에 $5,000 보장.
주6일 영업(Short Hour). 다운페이 : $50,0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채소 염가 판매〉
미시사가 농장
◉판매시간: 9월은 토요일만 오픈. 시간 12~6:00시
◉판매방법: 칼과 Box 준비. 직접 뽑아 가심.
◉채소종류: 배추, 여러가지 무 있음.
(열무김치·풋배추·국거리·저장류)
◉장 소: Eglington과 HWY10 교차에서 서쪽으로 1마일 가면 Second Line있음. 북쪽으로 500m.
◉연락처: 622-5509

(1)Variety Store $109,000(스카브로)
(2)Variety Store $28,000(Finch & Islington)
(3)Coin Laundry & 건물 $159,000(Bloor)
(4)건물 : Bloor & Christie. $154,000
전화 : 481-3443(B), 745-5485(R)
Canada Permanent Trust Co Realtor.
황 순 일

Business Opportunity
위치: Borough of York. 매상 대단히 양호함
번창한 곳에 위치한 최고의 여건을 갖춘 과일과 야채가게 좋은 리스. 꼭 관심있으신분 연락바람.
Mr. Gim Gounelas 536-5600
Premore Real Estate Ltd.

SERVICE STATION
2. BAY GARAGE-SNACK BAR.
Highway 10 North of Brampton
One Acre Corner Lot. $80,000.
Down Payment. Mr. William.
251-4656 Albany Real Estate Ltd.

FAST TAKE OUT 식당 팝니다.
주매상 : $2,000(일요일은 쉼). 5년 리스
23 Helen St. Missi. Ont. 전화 : 274-7010

TUCK SHOP
주매상 : $4,500. 리스 : 84년 11월까지+5년
전 화 : 272-4568 (오후1시이후 연락바람)

VARIETY STORE 매매. (NO GROCERY)
3447 St.Clair E. at Birchmonut Rd.
전화 : 265-9000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베커프렌차이스 매매
연락처 : 691-9414 (월-금 오후5시이후)

좋은 가격으로 바쁜거리에 위치한 Variety Store. 주인 은퇴로 급히 팝니다. Call Mr. Messina
Cabot York Realty Inc. 781-6151. 577-0616

카드(Card) 렉 (4 ft.) 팝니다.
전화 : 769-5956

다운 Town Mall안에 있는 가게를 일손이 모자라 급히 팔고자 함. 옷과 Varity 겸함. (혼자서 운영가능)
전화 : 536-1914 (Mr. Yong)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집렌트

4 Bed Room 집전체를 싸게 세놉니다.
Branpton 전화 : 1-632-9313

House for Rent. (3 Bes Rm.: 6 Rms)
31 Barton Ave. near Bathurst. 가격은 드는 사람에 따라 적당히 조정될 수 있음. 447-1869 (Mr. Don Fenton)

아파트렌트

방세놓음. Pape Subway에서 1 Block 거리.
노인부부 혹은 여자분 환영함. $260/M.
전화 : 282-0236, 968-6284

방세 Two (킬×St.Clair)
One (Dundas×George.St)
Tuesday 226-2077. 763-3289

가게렌트

Variety 혹은 Grocery Store에 적합한 빈 Space Rent 합니다. 1500 sq.ft.
774 St.Clair W.로 직접 내방 바람.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저희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광고문의, 신청 : 533-2361~4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가구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글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R)743-4842 Mr. 마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핀치)
전화 : 746-3458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 남·녀 컷, 파마전문
•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서×로얄욕) 전화: 255-4745

ANNIE'S BEAUTY SALON
◉남·녀 파마, 컷트, 화장전문, 여드름, 주름살 치료, 메니큐전문, 머리염색, 귀걸이 구멍뚫기.
◉차편제공 가능. 불란서고급 화장품 취급.
812 Queen St. E (퀸×브로드·뷰) 463-9071 Mrs.Lee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백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선물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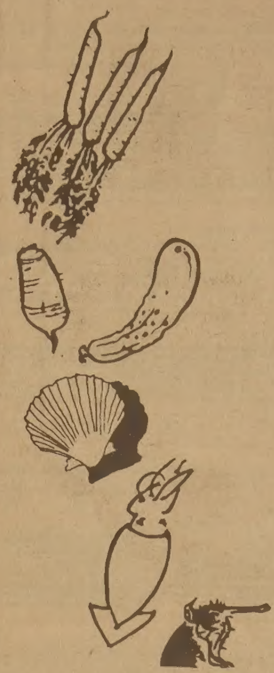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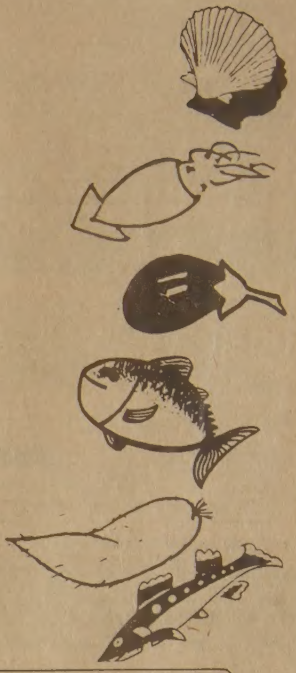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PRE 인벤토리 세일

세일기간 : 9월3일 ~ 15일



		SPECIAL	REG.
● 장미쌀	50 LB.	$12.95	~~$17.95~~
(1세대 1포) U. S. A. No. 1			
● 조 기	1 LB.	$1.49	~~$1.99~~
● 새우젓(특등품)	1 LB.	$1.99	~~$2.99~~
● 회조개(깐것)	2 LB.	$7.99	~~$9.99~~
● 낙 지	2 LB.	$7.99	~~$9.99~~
● 오징어(점보 싸이즈)	1 LB.	$0.99	~~$1.49~~
● 우동국수	5 LB.	$3.99	~~$4.99~~
● 막국수	5 LB.	$3.99	~~$4.99~~
● 김 한톳(100장)		$10.95	~~$14.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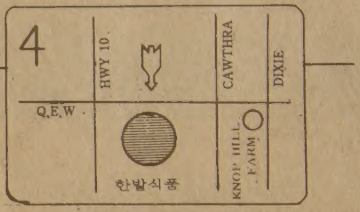
※전기밥솥(National : 3인용－22인용) 원가판매

※인삼 스페샬 세일

한밭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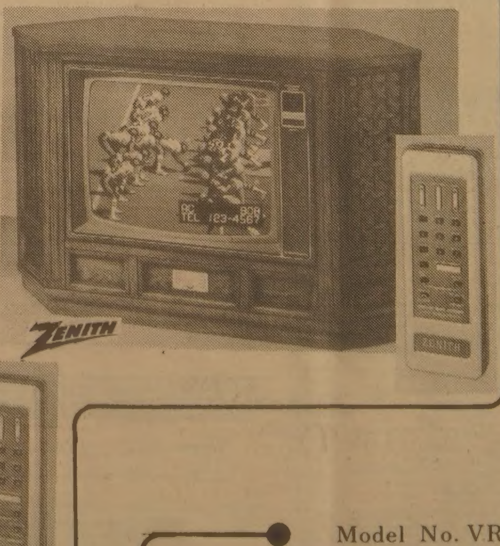
466 SOUTH SERVICE 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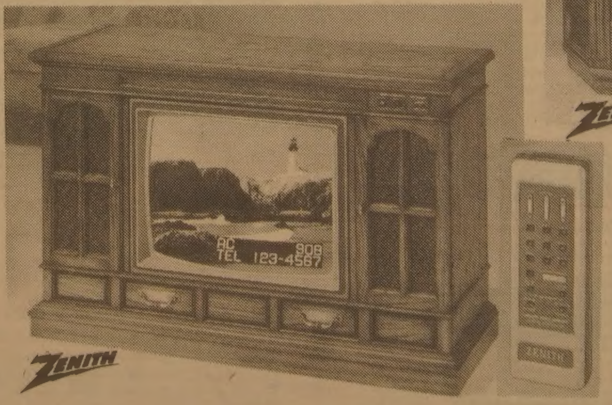
☎ : 274－5401



ZENITH 82년도 ZENITH TV & VIDEO 재고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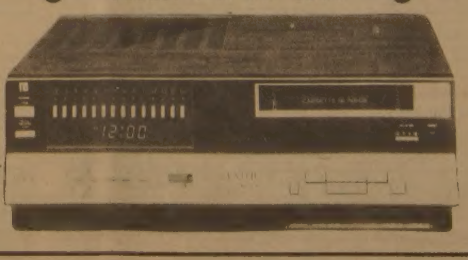
● 112CHANNEL SPACE PHONE
4 SPEAKERS, AUDIO OUTPUT
AUTOMATIC ON/O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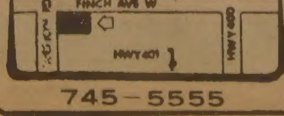


● 105 CHANNEL SYSTEM
SYSTEM 3 20" 칼라TV

Model No. VR 8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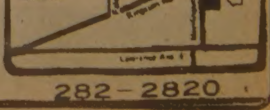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745－5555

아카데미 T.V. & STEREO CO.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282－2820